

금주의 기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트럼프 시대에도 '선지자 외침' 계속돼야 한다!

CT회장 티모시 데릴폴, "백인크리스천 침묵서 벗어나 불의 맞설 정의 소리되라" 촉구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은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과 소수계를 향한 그의 연설과 트윗은 거침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노골적인 트윗을 남긴 미국 제45대 대통령의 행태에 놀란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는 두 번째 트윗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범죄가 창궐한 본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때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소수집단을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잘못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초기엔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비판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정치 시사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웃겼다(comedic)'며 여성 정치인들로 구성된 '스쿼드(유력 정치인)'가 그럴싸한 말들로 젊은 층의 반트럼프 감정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나단은 왕궁의 고문이자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그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발표하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며 전설적인 왕들의 역사를 썼다. 성경은 궁전 선지자들에게 거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통치자들에 대한 변론자로만 섬겼기 때문이다(때론 아첨까지 하면서). 그러나 나단은 궁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하는 온전한 선지자였다.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온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했을 때 아무도 다윗에게 진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선지자 나단만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다윗에게 진언을 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의 책망은 정말 서슬이 시



퍼렇다 할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왕을 책망하고 비난한 대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왕을 얻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는 정치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사막에서 부르짖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비난했다. 즉 동생의 아내를 취

미국 정치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균열이 심각하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통령 선거캠페인 시절 보여준 발언은 지나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BBC는 "다음 미국 대선까지 약 16개월 남은 상황에서, 그의 재선 캠페인 역시 지난 대선 캠페인처럼 '파괴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할 정도다.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크리스챤티티투데이(CT) 회장, 티모시 데릴폴(Timothy Dalrymple)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사실을 통해 미 정치권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한다(On Court Prophets and Wilderness Prophets: Christian responses to the president). 그러면서 백인 크리스챤들이 다른 피부색, 다른 나라에서 온 크리스챤 형제 자매들과 연대를 위해 침묵에서 벗어나 '바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친다.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크리스챤티티(CT) 독자 중 일부는 트럼프를 추종하는 열광적인 지지자들이거나 진보 진영 후보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찬성하고 있다. 다른 독자들은 트럼프를 한결같이 거부한다. CT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만큼 더 이해하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 나는 광야 예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에 궁전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 놀랍다. 나는 또한 과연 궁전 선지자들이 대통령이건 정치자이건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가까이 "죄"라고 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3면으로 계속)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게 하라!

리더십저널, 윌로우크릭 전도팀 사역팀 게리 폴 목사에게 듣는 소그룹 사역 노하우 소개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개척멤버이자 신학자요 저술가인 길버트 빌레지키안(Gilbert Bilezikian)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community)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말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꾸미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크리스챤티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서 "길버트 빌레지키안이 없었다면 윌로우크릭교회도 소그룹도 섬김에 대한 열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교회공동체를 위한 그의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길버트 빌레지키안의 말처럼 공동체를 세우고 가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특별히 교회 내 소그룹은 교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두에게 친숙한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없이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소그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그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기존의 소그룹을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게리 폴牧사는 윌로우크릭교회의 전도팀 대표 사역자로 10년이 넘도록 윌로우크릭교회의 구도자 소그룹 사역을 맡아 전담했다. 이 사역을 통해 윌로우크릭교회는 성장했고 많은 구도자들이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사역하는 혁신을 이끌어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세계로 초청했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처럼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을 함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 소그룹이

가지는 영향력이 발산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다
비전과 목표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게 한다.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소그룹의 비전과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 소그룹의 목표에 대한 몇 가지 예와 방법들을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전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인터뷰 박운송 목사 16면

ATS 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어? 성경이 읽어지네!

생장점이 터지는 **구약성경일독학교**

이애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드립니다

개강 날짜 및 시간

- 2019년 9월 11일 ~ 12월 11일 (매주 수요일, 11월 27일 휴강)
- 수요일 오전 9:30am~11:30am
- 수요일 저녁 7pm~9:30pm
- 강의장소 : 하늘소망교회 (3416 W. 1st St. LA, CA 90004)
- 교재 : 성경책, 구약워크북/구약내비게이션(현장구입 가능)
- 등록비 : \$50

강사진

-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 김소연 전문강사
- 임다나 전문강사
- 정민주 전문강사
- 문의 : 김덕수 목사(213-500-2948, dock.kim@biola.edu)



발행인 칼럼

상처, 행복의 전주곡(前奏曲)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전주곡은 앞으로 전개될 전곡(全曲)을 예표(豫表)한다. 밝은 전주곡이 밝은 전곡을 이끌고 목직(木直)한 전곡은 그에 걸맞은 전주곡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하나의 곡(曲)으로 생각한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주곡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대단히 역설적(逆說的)이다. 우리가 연초(年初)에 힘있게 부르는 찬송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그렇다. 어두움이 밝아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전주(前奏)와 후주(後奏)이다. 예상을 뛰어넘지 않는다.

육신의 상처는 만지면 아프다. 잘못 다루면 더 덧난다. 그러나 그 상처가 확실히 치유되고 그 상처 위에 더 좋은 피부를 계속 갖게 된다면 잡시의 상처를 마냥 싫어할 이유는 없다. 상처는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있다. 상한 마음이다. 치유가 쉽지 않다. 평생 그 아픔, 그 쓰라림으로 지내다가 마침내 쓰러져 흠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참담(慘憺)한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이다. 처갓집 가족들과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그 아이를 잃었다. 떠돌이 생활이 가운데 길을 걷다가 아이가 아빠엄마는 물론 다른 가족들을 놓치고 다른 길로 간 것이다. 아이를 다시 찾아가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다시 찾은 아이를 향해 엄마가 "그러 길래 내가 뭐랬어. 엄마 손 꼭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놔두고 형만 데리고 올 걸 그랬다" 라고 했거나 그 옆에 있던 내가 "속 짝이는 너는 혼 좀 나야해!" 하며 철썩 등짝을 때렸다면 둘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부부는 그 때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할 수도 있었다. 우리 모두는 부지(不知) 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간다. 치유되지 않으면 영원히 간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행복의 전주곡이다. 상처가 저절로 행복이 되겠는가.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탁월하신 상처의 치유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연약해 보셨다. 그는 상처를 받아 보셨다. 그러시기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잘 이해하신다. 그리고 잘 도와주시고 잘 고쳐 주신다. 그분이 만져준 상처는 행복의 전주곡이다.

남편은 대학 연구단지의 실력 있는 연구원으로, 하나 뿐인 아들은 공부 잘하는 중학생으로, 자신은 대학의 존경받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밝고 재미있게 지내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조금 전에 헤어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悲報)를 그 집사님은 접하게 되었다. 남겨진 두 식구에겐 밝은 대신 어둠이, 재미 대신 슬픔이 깃들었다. 그 가정의 슬픔은 그가 섬기던 교회와 대학 전체의 슬픔이었다. 당시 함께 교회와 대학을 섬기던 내게도 너무 큰 아픔이었다. 상실(喪失)의 상실(喪心)이 더 깊어갈 때 그 집사님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이길 수 있어요. 나의 고통이니까 나의 관점으로만 보았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내가? 물론 아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이 설교 중에 그 마음의 상처를 만지신 것이다. 그 집사님은 자기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관점을 가진 집사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교수로 일어섰다. 그 아들에게는 나도 어렸을 적에 엄마를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더니 그 후 어린 예배에 참석하면서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설교자의 설교를 귀담아 들곤 했다. 그 아들은 자기가 공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일찍이 찾았다. 그 슬펐던 상처의 가정은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행복의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갔다. 상처는 확실히 행복의 전주곡이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지만 하면.

‘동성결혼’ 빚장 풀린 지구촌

퓨리서치, 최근 에콰도르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른 지구촌 현황 보도

동성결혼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에콰도르가 포함되면서 현재 30개국에서 허용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에콰도르

는 중남미에서 5번째,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국가가 됐다(A global snapshot of same-sex marriage).

결혼할 권리를 청원한 두 쌍의 동성커플과 정부 사이의 오랜 법적 공방전 끝에 나온 이 결정은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에콰도르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뤘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비공개 심리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동성커플의 결혼권을 인정하고 국회에 '결혼평등법' 제정을 명령했다. 그 판결 후 원고 중 한 명인 에프라인 소리아는 AP통신에 즉시 결혼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리아와 그의 파트너는 2012년 이래 '시민결합(civil union)' 상태였다. 에콰도르에서 2009년 도입된 '시민결합'은 동성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거의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만 공동입양은 금지한다.

에콰도르 현재의 판결은 올해 초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과 오스트리아의 선례를 따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지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동성

성 부부와 같이 자녀양육권, 세금·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를 갖는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해, 다시 말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생활

개국(대부분 유럽과 남·북미에 속한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거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했다. 그다음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다. 중남미에선 2010년 아르헨티나가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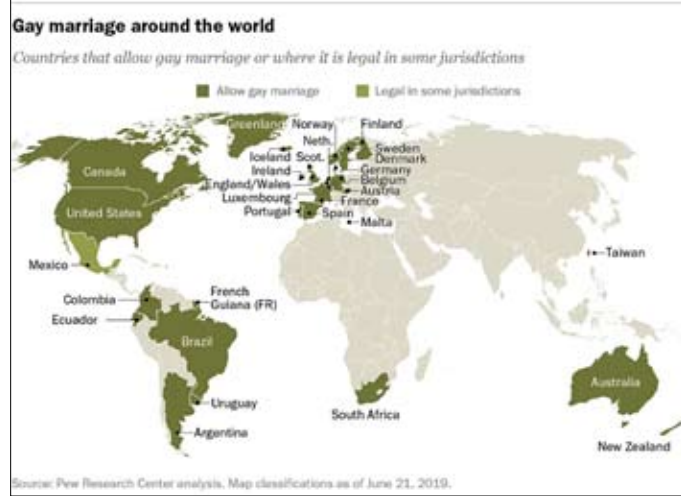
2015년 미국 대법원은 '오

확인했다. 모든 미국인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가 모두 더 자유로워진다."

캐나다 맥길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적대적인 편견은 매사추세츠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주가 된 2004년부터 오버 거릴 판결이 나온 2015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전반적인 동성애 혐오증은 감소 추세였지만 여러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편견이 급격히 약화했다.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판결을 내리면서 동성애 반대 정서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맥길대학의 에릭 헤만 교수는 "민주 정부는 법 제정으로 국민의 태도 변화를 이끌거나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편견의 변화를 일으킨 증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버뮤다(영국령)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가 이를



이성간 결혼은 인구증가, 사회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의 보호 대상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등도 인권, 행복추구권 등 이유로 못 막아

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지는 동성커플을 결혼한 부부보다 훨씬 적은 권리를 부여받는 '등록된 동반자(registered partnership)'로만 인정했다. 니콜레 코파우니크와 다니엘라 파이에르가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결혼한 동성커플이었다. 그들은 2019년 새해 0시가 지나자마자 남부 도시 펠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대만은 지난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5월 17일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를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성소수자 단체 아틀라이트 액션 인터내셔널의 제시카 스텐 사무총장은 대만 입법원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한 것을 이렇게 평가했다.

"대만 입법원은 성별을 불문하고 사랑은 사랑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트너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보호혜택을 누리길 싶어 하는 모두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을 마련했다."

이 세 국가는 결혼의 자유를 인정할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지난 20년 동안 30

버뮤다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재판에서 동성결혼 금지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50개 주 전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승리"라며 "미국은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대다수 미국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던 바를

반복한 세계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 버뮤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결혼평등'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국민투표 결과 국민 대다수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자 9개월만인 지난해 2월 버뮤다 의회는 동성결혼을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19학년도 가을 학기 학생 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1. 학사 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박사과정(우측내용 참고)
5.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6.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2019학년도 가을학기
원서 마감일: 2019년 8월 31일
개강 수련회: 2019년 9월 3일, 4일 오후 7시
장소: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

개강 영성 수련회
일시: 2019년 9월 3일(화), 4일(수) 오후 7시
장소: 예배실(대흥장로교회 내)
주 강사: 이정현 총장(9/3, 화) 정인채 교수(9/4, 수)
2019학년도 가을학기 개설 과목
Date Course Name Prof
Mon. Church Growth (교회성장학) 박희성 교수 D. Min
Tue. Wisdom Literature (지혜서) 김동진 교수 Th. D
Wed.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신학) 정인채 교수 Ph. D
문의: 김동진 학감(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California BPPE의 인가(#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목회학 박사 과정(Doctor of Ministry)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단체 지도자
졸업학점: 36학점(논문 12학점 포함)
학비: 학점 당 150불
(2) 신학 박사 과정(Doctor of Theology)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M. Div), 혹은 신학석사(Th. M) 소유자
전공 분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입학시)
졸업학점: 48학점(논문 12학점 포함)
학비: 학점 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0577, 626-675-8010

트럼프 시대에도 '선지자의 외침'은 계속되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정치 권력에서 거리가 먼 광야에서건 모든 책략과 술수가 난무하는 궁전에서건, 나단과 세례 요한이 공통점을 가졌던 것은, 트럼프를 다윗이나 헤롯으로 본다면, 둘 다 불의를 기꺼이 책망하고 비난하고 싶었던 열정의 선지자였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미국 사회 정치 드라마의 인종적 영향은 바로 오늘 이 시기에 더 깊은 의미를 더한다.

백인 크리스천들은 유색 인종이 공격 받고 있을 때, 길고 슬픈 역사의 침묵 (또는 더 나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백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친구들이나 다른 민족의 이웃들과 관계 형성과 화해의 다리를 만들고 싶은 진정한 열망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색 인종들을 향해 쏟아내는 추악하고 인권 유린적인 발언이나 연설에 백인 형제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유색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심각한 좌절감이 감지된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인 유색 형제들은 백인 교회의 침묵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지않고 있다.
백인 크리스천들이 다른 색과 배경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대해나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우굴에 빠진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최대한 가깝게 서서 "그들"과 "우리"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없을 때까지 "그들"에 대한 공격이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우굴에서 여동생을 버리면, 그녀는 우리의

저녁 식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도 아니다. 우리는 더 높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우굴에 서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궁전 선지자들과 광야 선지자들이 서로 같이, 그리고 정치적 해결을 위한 설득과 대화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말하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서기를 촉구한다.



시론

인생의 복기(復棋, Review the game)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바둑기사(棋士, professional go player)들은 종종 혼자서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바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혼자서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 의아해하지만 그 바둑기사는 '복기'(復棋, Review the game)를 하는 중입니다. '복기'는 이미 끝난 바둑의 승부를 그대로 바둑판 위에 한 수씩 재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승리와 패배를 다시 분석하여 차후 승부에서 밑거름을 삼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명인의 명승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복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의 승부에 두는 수가 평균 400개입니다. 그러니까 '복기'를 하는 바둑기사는 400번의 착점을 모두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와 상대방이 두는 순서까지 기억하며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둑기사들은 이 '복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둔 바둑이나 유명한 기사들의 명승부도 외워서 '복기'를 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 점을 신기하게 여긴 기사가 프로 바둑기사에게 '복기'가 가능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둔 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퍼온 글).
난 바둑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다만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혼자 바둑 두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바둑은 저렇게 혼자서도 둘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위에 언급한 '복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1대국마다 400개 전후의 착점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재현하는 감히 범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집중력과 기억력에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대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시편으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편 113편,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나게 울음을 하며 불러오던 찬양을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 찬양할지라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와 이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113:2-3), 신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인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구나. 인생은 매일매일 어떤 벽돌들을 하나씩 쌓아 가느냐에 따라 결국 전체의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결국 "인생의, 신앙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매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들(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이 모여 결국 내 전 인생(이제부터 영원까지)이 됩니다.
매순간마다의 선택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내 전 인생은 관계, 명예, 재물 등등 삶의 제반 영역에 있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더 나가 주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아는 수전노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매순간마다의 선택을 내가 속한 많은 공동체(가정, 교회, 집단, 나라, 민족, 세계 등등)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며 살았다면 내 전 인생은 공동체를 치료하고 세우고 회복하는 이타적인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기사들의 대국에 빗대어 봅니다. 대국을 치를 때마다 400개 전후의 착점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점 한점이 의미가 있고 그 한점 한점이 이어가며 그려가는 전체 흐름이 있기에, 대국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따라하는 '복기'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기를 통하여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자기 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자기 스스로를 관통해볼 줄 아는 일관성"입니다.

(6면으로 계속)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게 하라!

(1면에서 계속)
구성원들이 자기만의 안락한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보려는 마음을 갖도록 알맞은 비전을 제시해준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스스로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소그룹은 구체적인 사역의 범위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계발하게 된다.

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 소그룹은 계속 변화할 것이며 그런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다. 새로운 구성원을 위해 기존에 다뤘던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될 경우, 좀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다뤄 모두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돕는다.



장해 돌로 나눠야 할 경우, 보조 인도자를 새로운 인도자로 세운다. 다음은 소그룹 인도자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다: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모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다음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두세 명의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전화해줘야 한다.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 소그룹 토론을 인도해야 한다. △앞으로 생길 새로운 소그룹 인도자가 될 의향이 있어야 한다(다른 보조 인도자와 함께).

전환 계획을 세운다
소그룹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된다. 다양한 사람이 오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도자는 소그룹이 여러 상황을 무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물결에 맞춰 소그룹을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신자가 대부분이었던 소그룹이 영적 성장을 맞았다면, 기존 소그룹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소그룹 구성원이 새신자들로 교체됐다면, 새신자들을 위한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소그룹에서 다른 종류의 구성원들이 섞여 있다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소그룹을 인도한다.

소그룹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시대와 변화에 맞게 움직일 때, 소그룹은 고인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물과 같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빈 의자를 채운다
인도자는 소그룹 내에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소그룹 모임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 한다. 어느 소그룹이나 성장과 확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 의자를 배치해 놓고, 그 의자를 채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물론, 기존 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기존 구성원들이 소그룹 역동성에 변화가 오

만약 소그룹의 규모가 너무 커져 토론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그룹을 둘로 나눠 재생산이 일어나게 한다. 계속해서 빈 의자를 놓고 그 의자를 채워갈 때 소그룹이 가지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게 된다.

보조 인도자를 정한다
소그룹이 가진 영향력이 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보조 인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도자를 도와 효과적으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임명한다. 지혜롭게 보조 인도자를 선택하고, 인도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소그룹이 성

'동성결혼' 빚장 풀린 지구촌

(2면에서 계속)
곧 향소가 이뤄졌고 지난해 6월 법원은 '동성결혼을 믿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혼 개념을 지지하거나 부활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새 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그 판결에 다시 항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케이맨 제도(영국령)는 오랜 법정 투쟁 끝에 올해 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그곳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성커플의 결혼금지 위

헌이라며 동성결혼을 제한하는 법의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했다. 이 판결은 케이맨 제도에 결혼 평등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앵글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몬세라트,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등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해외 영국령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세계 대다수 지역이 동성결혼을 금한다.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나라도 70개국 이상이다. 중부·동부 유럽에선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서유럽에서도 이탈리아·스위스·그리스는 완전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남아공만이 동성커플의 합법적인 결혼권리를 인정한다.
그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청소년층에서 성적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 관련 콘텐츠의 영향을 통해 그 영향이 미치는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그 성적 가치관을 자리매김하는데 되

레 방해가 될 확률이 높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이성간의 결혼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성간의 결혼은 인구의 증가, 사회의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위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성결혼의 확산이 나 인정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예외를 두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근친결혼이나 일부다처제 등의 결혼도 인권,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주복음방송국에서 CWM 양육교재 특강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축복으로 받았는지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간 신앙양육 교재를 사용하여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방법과 '4분 전도법'을 소개합니다. 무감각해진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 행복해 집니다. - 신앙생활에 열심이 생깁니다.
- 전도에 불이 붙게 됩니다.

CWM은?
1989년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기관입니다. 각 나라말로 전도지를 번역, 제작,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지역,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장 소 : 미주복음방송국 공개홀(GBC 애너하임 본사)
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대 상 : 교역자, 사모, 평신도 모든 분
수강료: 20불(양육교재, 전도지, CD)
문의 :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주 최 : CWM(Christ Witness Mission)

8월 6일 (화요일)
10:00am - 12:30pm

담임목사 청빙

부에나파크 지역 갈릴리장로교회는 아웃리치 개척교회로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KAPC)남가주 노회에 소속되어있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분
미국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분
담임 또는 부교역자로 이민목회경력 5년 이상인분
소명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아웃리치 개척교회를 섬기실 분
신체 건강하며 가족이 화목하신 분
1974년 이후 출생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현 노회소속 증명서
목회철학
최근 설교 동영상 1편 또는 설교 동영상 확인 링크 주소 추천인 2명의 봉인 추천서 또는 연락처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 마감 : 2019년 8월 20일
우편 주소 : 775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온라인 주소 : oj-pm@hotmail.com

부에나파크 지역 갈릴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Buena Park Galilee Korean Presbyterian Church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투게더(Together)

반얀나무(Banyan Tree)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하와이에서 크고 신비로운 반얀나무 밑에서 더위를 식힌 적이 있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반얀나무는 수많은 가지들

방으로 뻗어 뿌리를 내려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을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한 그루가 산을 덮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얀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가 덮고 있던 땅은 메마르고 황폐한 불모지가 되고 맙니다. 뻘뻘하고 거대한

반얀나무 밑에서는 모든 영양분이 차단되어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식력이 강한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바나나 나무입니다. 생후 6개월이면 새순을 내고,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줄기를 따서 옆에 심으면 짧은 시간 안에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서 바나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나무는 반얀나무와는 다릅니다. 땅에 떨어진 나무의 잎사귀가 거름이 되어 주위의 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얀나무와 바나나 나무는 둘 다 번식력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반대입니다. 반얀나무의 번식력은 다른 식물들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

한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혼자만 성장하고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나무의 번식력은 스스로 거름이 되어 주위에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함께(Together) 생존하고 함께(Together) 성장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나나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번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만 번성하는 반얀나무가 아니라 투게더, 함께 자라는 바나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번성과 성장이 믿음의 지체들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alone)가 아니라 '함께'(Together)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

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투게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투게더' 말씀을 배울 때 함께 성장합니다. '투게더' 봉사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투게더' 전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투게더'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체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도 함께 이겨냅니다. '투게더' 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숲을 이룹니다. 혹시 과거에 공동체 안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시 큰 맘 먹고 모임에 참석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헨리 나우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점들,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낙심들, 그리고 우리의 모순들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순투성입니다. 결점도 많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 안에서 투게더 해야 합니다. 외톨이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어 '투게더' 자라는 바나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체들과 영적으로 푹푹 묻혀 흘려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푸/른/초/장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동작'이다. 빠짐, 마음 상함의 특징은 입이 다물어지고 이의를 묻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히스기야는 기도 하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여쭙지 않는다. 자신에게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주시기를 여쭙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옳음을 강조함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함을 호소할 뿐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런 대접 받을 이유가 없음을 호소하는 동시에 심히 통곡한다.

3절, 일단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무언가 아직 확실한 답을 얻기 전의 상태에서 나오는 슬픔의 분출이다.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아직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하는 통곡이 있는 반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아직 온전히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출하는 통곡이 있다. 그런 면에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히스기야와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시는 겿세마네의 예수님이 대조된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중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자신이 행한 바가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할 빛이 되었다. 자신이 진실과 전심과 선행이 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청하신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해석되지 않고, 그에 따라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어거지로 투쟁하는 이유는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죽어도 괜찮은 삶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절, 일단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무언가 아직 확실한 답을 얻기 전의 상태에서 나오는 슬픔의 분출이다.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아직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하는 통곡이 있는 반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아직 온전히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분출하는 통곡이 있다. 그런 면에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히스기야와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시는 겿세마네의 예수님이 대조된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중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자신이 행한 바가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할 빛이 되었다. 자신이 진실과 전심과 선행이 마

히 인정하기를, 그리하여 자기 개인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유대민족 공동체를 향한 공공성 있는 기도를 요청하시고 공공성 있는 응답을 하려 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6절,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려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응답'이라는 거다.

히스기야에게 기분 나쁜 말씀인가? 아니다. 만일에 우리 중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반감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들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 개인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 철저히 나 개인을 향한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때조차 하나님은 반드시 공공적 차이를 위하여 공공성 있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나를 부르시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행16:33,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는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부름을 받는 것이다. 사명!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고 그리하여 치료하시겠다 하신다. 단 몇 십분 사이로 히스기야는 죽다 살아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이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그의 내면이 악수르에 대한 승리 이후 어느새 개인적 자기중심성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 죽음 앞에 직면하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자기 인생의 공공성을 생각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기대는 합당하고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기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 안에서 이 거룩한 공공성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응답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잠언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보상으로 부귀영화를 약속하신다. 하지만 부귀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도 그것들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고 계셨다.

(5면으로 계속)

히스기야에게서 느낀 세가 빛어진 이유에 관하여

열왕기하 20장 1-7절

본문은 또 다른 위기를 넘어선 히스기야의 이야기다. 히스기야는 투항을 요청하는 앗수르 20만대군의 압박으로 나라가 소멸될 위기 앞에서, 끝내 앗수르 대신 하나님께 투항하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가혹한 기다림과 숨 막히는 인내를 통과한 믿음의 승리였다. 그런데 그 후 히스기야 치명적인 재앙이 찾아왔다.

1절,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2-3절,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통곡한다. 자신이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현재의 고통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벗어나게 하셔야 한다고 믿은 거다.

물론,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대체로 환난 중에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일에 환난 중에 자신이 살아온 진실과 전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히 뻔뻔한 사람이거나, 대단히 진실 되고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겸손을 가장해서 자신을 죄인이라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즐기는 알팍한 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뜻은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임했다. 4절,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이었다. 죽을 자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인 치료행위를 하신다. 7절, 이사야의 손길이 닿는 순간 신적 손길이 그 몸을 통과하였고, 히스기야는 회복되었다.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 만일에 그것이 축복과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내가 여전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암보다 더 나쁜 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지 않는가?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15년 간 자신과 나라를 위해 차분히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선물로 받은 셈이었다. 막연한 50년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15년이 훨씬 더 좋고 할 수 있다.

했다고 평가했다. 다윗은 서른 살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25살에 왕 위에 올라 14년 만에 죽게 생겼다. 성경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의 사고방식에서 때 이른 죽음은 하나님의 벌로 여겨졌다. 따라서 히스기야 안에 어떤 해석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한 거였다. 자신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여왔다. 따라서 자신이 일찍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맘에 들도록 살아온 모든 세월과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가 하

우리는 히스기야의 질병에 피소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위기를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본문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 보인다. 위기를 넘어서던 히스기야가 넘어진다. 동일한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 1절 다시,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야속하신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걱정 말라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든지 하시는 대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곧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고 준비하라'는 식으로, 어찌 그리 냉담하게 말씀하시는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그의 나이 39세였다. 히스기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성경은 히스기야가 다윗에 버금가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

는 모순을 느끼면서 갈등한 것이다. 히스기야가 섭섭했을까? 섭섭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상처 받았을 것이다. 자기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 모순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불면의 날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것이 이런 기도를 보내었다. 2절, 우선 그가 벽을 보고 앉았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앗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나라 전체가 빠져나갈 길 없는 고통의 늪에 빠진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찾은 곳은 성전이었다. 이유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조급해도, 현실에서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는다. 몸을 돌려 벽을 보고 앉는다. 우리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벽보고 앉는 것은 전문용어로 '빚집의

팡히 이것과는 다른 대접을 받을 자격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다. 전형적인 마음의 중심축의 이동, 자신이 중심이 된 안타까움, 신앙에서 종교로의 회귀 현상이 비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통곡은 일종의 저항이었고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판결 요청이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 공동체의 문제, 공공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신뢰했던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개인의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지 기도응답에 관한 내용이었을까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지 않았다면 반드시 잊지 않았을 본질을 말씀하신다. 5절,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려 하신다.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주권자임을 잊지 않는 주권자일 때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는 존재다. 3절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를 너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 백성의 주권자라면... 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이 아시리라,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왕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진정한 왕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

약속 문화: 시계 보면 시간 낭비

BBC, 기자출신 장관 엘리자베스 오네의 가나 소개

시계가 큰 의미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다. 바로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있는 가나다. 기자 출신이자 장관직을 지낸 엘리자베스 오네가 BBC에 '가나에서 시계를 보는 것은 왜 시간 낭비' 인지를 전했다(Letter from Africa: The country where everyone is expected to be late).

최근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사쿠라다 요시타카가 국회 회의에 3분 지각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보며 가나 장관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공무원들이 직무에 늦는 일이 가나에서는 용인되며, 실제로도 늦는 경우가 잦다. 우리 태도에도 이 문화가 뿌리 박혀 있다. 내가 국무장관에 있을 때 일이다. 시간에 맞춰 행사에 도착했지만 내가 제시 시간에 나타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 중 많은 사람은 '제시간에 대통령이 행사에 도착하게 한다'면 이런 문화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존 쿠포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약속 시간 9시 30분 정시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한다. 대환란이 일어날 뻔했다. 자신의 자리로 달려가는 외교관들, 미친 듯이 서두르는 고위 관료들이 있었다. 구포르 대통령이 당황한 채 지켜보는 가운데 전통 부족 족장들은 평생시 장엄한 걸음걸이를 포기하고 자리로 뛰어갔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행사에 제시 시간에 도착하면, 모두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해서 시간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나는 항상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매우 당혹스러웠다.

어렵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세 번의 시도 끝에 우리는 시간 지키기 실험을 포기했다. 의전 담당과 보안 요원들에게서 논쟁이 계속 일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대통령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치고 그들 역시 종종 지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나에서 좀 지내다 보면 그곳에 토착화되어, 정시 시작이

재임 중인 현 나나 아쿠포 아도 대통령은 취임식 날, 늦게 시작하는 행사 문화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제시 시간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시간을 지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시간 지키기 문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 같진 않다. 10시에 회의가 시작된다 고 하면, 보통은 45분에서 1시간 늦게 회의가 시작된다.

지옥 같은 교통 상황도 여기에 일조한다. 교통 상황은 예측도 어렵지만 지각의 정당성도 제공해주는 셈이다.

내 경우도 집에서 사무실까지 이동 시간은 20분, 40분, 또는 1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1시간 50분까지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12시 30분 점심 초대에 오후 4시에 도착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순 없다.

예정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문화는 우리 삶의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재봉사는 내게 원피스를 3주 만에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3개월 뒤 난 완성된 드레스를 받은 사실 자체를 행운으로 여겨야 했다.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내가 가는 교회는 예고대로 실제 9시에 예배가 시작되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예배는 11시 30분, 낮 12시, 오후 1시 등 끝나는 시간이 매번 다르다. 행사가 있으면 오후 3시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시계를 보지 않는 편이 낫다.

여기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시간을 꼭 맞춰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다만 그 보상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깊이 깨달아 그 위험의 길을 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문제는 승리의 개인화였던 것 같다. 앗수르에 대한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개인화했던 것 같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숲 속에 나무 한 그루 심어 놓고서도 '저 숲 다 내가 꾸민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알곡은 자들이다.

승리의 개인화는 반드시 자기 그림을 만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처럼 보이는 자기 그림을 강조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그 그림이 자신과 나라를 망친다.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은 그레아만 했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이 목 베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감옥에서 탈출해서 해룻을 피해 다니면서 저항운동을 벌였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빚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의미 없어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의미 없는, 하나님의 그림인 듯 하나 자기 그림일 뿐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질병의 위기를 넘어서다가 개인적 자기중심성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서다 넘어진 인생이 되었다. 다음 구절들에 더 명백한 증거들이 등장한다. 히스기야에게 추가로 주어진 15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공공적 시간이어야 했고, 그에 걸맞은 후계자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온 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개인화된 자기욕망과 만족에 빠져 그 금쪽같은 15년을 망가뜨렸다.

넘어짐의 조짐은 넘어짐보다 훨씬 전부터 내재하기 시작하는 거다. 히스기야는 다음 구절들에서 확실하게 넘어진다. 그러나 확실하게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짐의 조짐이 더 중요하다. 넘어짐은 넘어짐의 조짐이 있을 때 자각하고 고칠 수 있어 야만 한다. 그 때가 더 쉬워서 가 아니라 그 때가 아니면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넘어짐의 조짐은 반드시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곧 종교적 율법적 사고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 편집능력이 탁월하다. 내가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 그랬느냐고 말한다. 내 주장과 느낌에 부합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편집해서 자기중심적인 강력한 논리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 자기중심성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 놓을 수 있는 것이 넘어짐의 조짐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사시는 삶에서만 가능한 일이

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현재 미국인의 조상인 청교도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어떤 조상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 되었는지요?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사이프레스 윤 집사

A: 영국(England)은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모두 합친 연방왕국을 말하는데 그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이 영국의 정식 명칭을 줄여서 United Kingdom으로 불립니다. 영국의 인종 구성은 잉글랜드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이고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켈트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색슨족은 원래 성격이 거친 야만족으로 전쟁을 즐겨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알던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앵글족, 색슨족, 쥬트족은 지금의 덴마크와 독일 서북부에 살던 게르만계 민족이었습니다. AD 3세기경부터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지금의 영국 동부 해안가에 자주 나타나 약탈 등 해적질을 일삼았고 그 중 일부는 돈을 받기 위해 로마군에 소속된 용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색슨족은 로마와 켈트족의 지원 요청을 받고 잉글랜드에 출병하였습니다. 그런데 색슨족이 잉글랜드 땅에 와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던 작센지방보다 더 나은 자연 환경에 현혹되어 잉글랜드 땅을 빼앗기로 결심하여 로마와 켈트족들을 살육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같은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 색슨, 쥬트족은 잉글랜드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앵글족에 비해 인구수가 훨씬 적은 색슨족은 앵글족에게 동화되어 결국 '앵글로색슨족'이 되었습니다. 쥬트족은 워낙 소수민족이라 앵글로색슨족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2000년 교회역사 중 가장 성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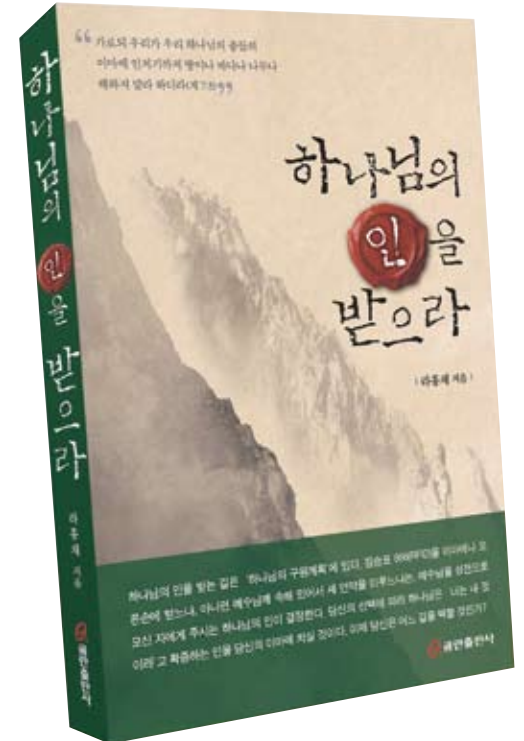
그래서 곡선희 목사의 "하나님나라"라는 책을 보면 "사실 영국의 청교도의 조상은 해적의 대 명사였던 바이킹(Vikin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이 해적의 후예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주위의 여자들은 방탕하고 병이 많아 위험하고 결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여자가 누구나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 여성들을 마구 붙잡아다가 강제로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고 좋은 자식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해적은 해적의 길로 가고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며 깨끗하게 키우느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바이킹이 아무리 큰 소리로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가문은 완전히 여자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나약한 여성이 강제로 끌려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 살지만 이것이 누룩이 되어 그 자식들이 오늘의 경건한 영국의 조상이었던 청교도가 되게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한마디로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라이큰(Leland Ryk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세상의 성자들(Worldly Saint)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오염으로부터 격리된 거룩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로 사도적 순결과 거룩한 양심을 지키려 세속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했다." 청교도들은 누구인가? 합동신학 대학원의 이승구 교수는 2000년 교회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다트키 브힐(DHATKI BHIL)

다트키 브힐 또는 다트(Thar)족의 대부분이 파키스탄의 '상하르' 지역과 '타파카' 지역에 거주하는 하나, 대략 15,000명가량은 인도에 살고 있다. 다트키브힐족은 좀 더 큰 종족집단인 브힐족에 속하는 종족이며 브힐족은 인도에서 세 번째로 인



구가 많은 부족이다. 다트키 브힐족은 힌두교의 카스트제도 안에서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된다. 브힐족은 인구의 65% 가량이 이슬람교도인 '다트키 브힐'족과 또 다른 힌두교도인 '브힐'족으로 구별된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오랜 반목으로 인해 1947년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을 설립해 독립하게 된다. 힌두교도들은 인도 왕조로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에 편입돼 분리된다. 소수의 다트키브힐족 가운데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지 않고 인도에 남았다. 1965-1971년까지 파키스탄의 남동부 지역의 국경지대 근처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삶의 모습

브힐족은 드라비다어로 'bille'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졌는데 이것은 '활'이라는 의미로써 부족의 호전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브힐족은 매우 다혈질적이고 활과 창을 잘 사용하는 부족으로서 최근까지도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을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다. 브힐족의 거주지는 라자스탄 지역의 서쪽 지대로서 항상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어 식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최근 이유로 비가 조금만 더디게 내린다면 그들은 기근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브힐족은 숙련된 농부이며 노동자, 그리고 순찰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소유한 땅은 매우 작고 척박하다. 그들은 소작인처럼 일하며 가족의 먹이로 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트키 브힐족의 마을은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다. 각각의 집들을 개인소유의 땅에 짓고 밀, 옥수수 등의 약간의 곡물을 재배한다. 부족의 사회는 씨족사회로서 근친결혼이 금지된다. 만일 근친 간에 결혼을 했을 경우 온 가족의 신분이 박탈당하면서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각 마을에는 마을의 우두머리가 있어 분쟁을 조정하거나 가축, 유괴, 싸움 같은 사건들에 관여한다. 남자들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며 절대적인 권한

을 누린다. 다트키 브힐족의 사회는 모두 신분사회다. 힌두교도의 사회 신분제도는 이슬람교 사회와는 달라서 순결과 불결의 개념이 따로 없고 종교적 이상 또한 따로 없다. 이슬람 계급에는 'SAYYIDS'의 상류계층과 'SWEEPERS'의 하류계층이 있다.

이슬람의 신분제도는 대략 7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신분의 서열은 세습되며 지주, 관리, 성직자, 장인, 농민, 목동의 순으로 나누어지며 그 밑의 최하위층의 사람들은 경멸을 받는다.

신앙

브힐족은 힌두교도이고 다트키브힐족은 이슬람 부족이다. 1480년 브힐족이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면

서 부족종 상당수가 이슬람교로 개종한다. 나머지 개종하지 않은 부족들은 인도 중부의 고지대 깊숙이 피신했다. 다트키 브힐족 가운데 일부는 브힐족과 인접한 평야지대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상류계층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받아들여 '푸다'라는 여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트키 브힐어로 번역된 성경과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다. 예수님의 영화나 라디오 방송 같은 기독교적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트키 브힐족 가운데 복음을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에티오피아교회 놀라운 성장, 전세계 주목

에티오피아는 솔로몬과 사바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세운 악숨 왕국으로부터 출발하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신약성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사도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행8:26-36)고 기록한다. 성경 역사를 가진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 선교운동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센터투데이(CT)와 한국 크리스천투데이(CTK)가 최근 보도했다. 선교운동의 진원지는 에티오피아 중남부 시다마(Sidama)로 인구 5분의 4가 개신교인이다. 현지 교단은 '에티오피아 케일 헤이웨트' 교단으로 시다마에만 1000여개의 교회가 있으며 선교사 250명을 파송하고 있다. 시다마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원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서구 선교사들이 떠나고 2명만 남았는데 이들은 모두 살해됐다. 이탈리아군이 철수하고 국제선교단체인 SIM선교회 소속 선교사 4명이 들어왔지만, 이 중 3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때 현지인 교회는 선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복수한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지금의 교회 성장은 이런 고난이 만든 결과이다. 현재 에티오피아 복음주의운동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인구는 2015년 기준 9900만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다. 내년 말까지 1억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늘어 1970년 90만명에서 2010년 1490만명으로 성장했고 2015년엔 190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의 종교별 인구는 정교회를 포함한 범기독교가 62%, 이슬람교 34%, 기타 종교 4%다. CT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들은 진흥으로 만든 음악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매일 교회가 개척되고 가정 모임이 만들어진다. 에티오피아 최대 교단은 2개의 복음주의 교단으로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 메케인 예수스'(1800년대 스웨덴 루터교회 설립)와 '에티오피아 케일 헤이웨트'(1920년대 SIM선교회가 설립)가 있으며 각각 900만명과 700만명의 성도들이 소속돼 있다. 두 교단은 자체적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최근엔 전 세계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협력해 선교에 힘쓰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스리랑카 경찰 'IS, '부활절 테러' 직접 배후 아냐'

스리랑카 경찰이 지난 4월 21일 2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활절 테러'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교가(IS) 사이 직접적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FP통신과 현지매체 등은 지난 24일 라비 세네비라트네 스리랑카 경찰청 범외사국(CID) 국장이 "조사 결과 부활절 테러범과 해외 이슬람 조직 간에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네비라트네 국장은 "다만 테러범들이 IS의 이념을 추종한 것은 맞다"며 "테러 직후 NTJ의 잔당들이 IS에 배후를 자처해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IS는 테러 발생 이틀 뒤 자체 선전매체 아마크를 통해 "IS의 전사들이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의 구성원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공격을 수행한 전투원들이 IS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디디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모습이라며 8명이 모여있는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라크·시리아에서의 IS 소탕작전으로 이들이 주권거지를 잃으면서 동남아시아·북아프리카 등의 이슬람권 국가로 활동 반경을 옮겨 테러를 저지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 세계에 다시금 'IS 공포'가 드리우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IS의 실제 테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IS는 대개 공격 직후나 테러의 충격이 고조된 상황에서 배후를 자처하며 선전효과를 극대화했지만 부활절 테러 때는 만 이들이 지나고서야 배후를 주장했다. 또 '국제동맹군 구성원'을 테러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스리랑카는 동맹군을 구성하는 79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과거 테러와 달리 신분증·얼굴 사진·영상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복면 차림 사진만 공개했다.



북한 억류 김동철 목사 "北군사정보美에 넘겨..."

체제전복 혐의 등으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재미교포 김동철 목사가 한국과 미국을 위해 북한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으로부터 북한에서 '안테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정보인수를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협력했다고도 했다. 김 목사는 "2009년부터 북한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나선경제특구(SEZ)에서 기업가로 활동한 독특한 지위 때문에 스파이로 채용됐다"고 말했다고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는 29일 보도했다. 간첩 및 체제전복 혐의로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 목사는 이듬해 4월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3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정보모락꾼들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의 당·국가·군사 비밀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넘겨주는 간첩 행위를 감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당시 보도한 바 있다. 김 목사는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당시 했던 말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말하며 미국으로부터 북한에서 '안테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테나' 역할을 자임하며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CIA와도 협력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정보 중에는 북한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정보도 있었다. 김 목사는 "CIA는 위성사진을 통해 나진항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감시하던 중에 나에게 초근접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선박이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줬다"며 "나는 (체포) 바로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로 장면들을 촬영했으며, 전자파 도청 장비들을 사용했다"고도 말했다.

김 목사는 북한 억류 중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물고문을 8번 당했다"며 "몇 차례 자살시도를 했지만 죽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문으로 현재 김 목사는 신체 일부에 마비증상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NK뉴스는 CIA나 미 국무부, 국가정보원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CIA 국장 출신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삼덕, 김학송 씨와 함께 미국으로 귀환했다.

한국에 가해지는 위협엔 눈감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북한을 다독여 북·미 실무협상을 이어가려는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유일한 외교 정치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에 치중한 나머지 논란을 자초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타결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갖고 있다"고 위협성을 애써 축소했다. "매우 보통의 미사일들"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탄도'(ballistic)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그는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남북한) 양측은 아주 오랫동안 분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미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한국 등 동맹국은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들(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더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허가를 북한에 주면서 동맹의 단결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 처지라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한 리트넷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네는 부탁은 묵과할 수 없는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마카오판공실 첫 기자회견 '홍콩 사태 입장발표'

중국 중앙 정부에서 홍콩·마카오 사무를 관장하는 홍콩·마카오 판공실이 최근의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지도부가 홍콩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홍콩 시위에서는 미국 성조기까지 등장하고, 공무원들도 시위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홍콩 사태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29일 오후 3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사태와 관련한 입장과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홍콩·마카오 판공실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이후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지난 21일 시위대가 홍콩주재 베이징 연락사무소를 공격해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등 사태가 심상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지난 21일 '백색 테러'가 벌어지자 중국 배후설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사태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아 일단 경고 차원에 그칠 것으로 SCMP는 내다봤다. 선전대 장명화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를 비난하면서 홍콩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론

(3면에서 계속)

수많은 파도들을 만나면서 갈수록 단단해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복기'가 필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순간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하는 '갈지자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한 방향으로만 가는 "초지일관 인생"을 살아야 하며, 인생의 '복기'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복기', 즉

'되짚어 봄, 일관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대목에 있어서의 400여개에 달하는 착점은 어디입니까? 일상의 '되돌아봄'과 '되짚어봄'이 즉 끊임없는 자기성찰인 '회개'가 우리들의 신앙의 일관적 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

자유와 회복과 소생의 사건'들이 내 일상에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는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에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와 이름을 초지일관 찬양"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훗날 인생의 최후의 '복기'인 '심

판대' 앞에서 아름답게 생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의 '복기'는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때, 인생의 '복기'(되돌아 봄, 되짚어 봄, 회개, 일관성)를 통해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주의

부요를 꿈꾸며 여호와를 찬양해 아하지 않을까요? pastor.eun@gmail.com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8. 김창준(1889-1959)

김창준은 고종 26년이던 1889년 5월 3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반석면의 야소교 소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인 1907년에 선교사 J. W. 무어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평양 숭실을 졸업한 이듬해부터 그는 전도사업에 나섰다. 그해 3월 남북 감리회가 주최한 총계신학회 2학년 과정을 이수했으며, 1913년부터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광성학교 부교장을 역임했다.

1914년에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동경 아오야마학원에서 1년간 공부한 후 평양 중앙교회와 박구리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시무했다. 1917년 3월에 그는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서울 협성신학교에서 제5회로 졸업하면서, 변영서와 함께 현재 서울 중앙감리교회인 종로교회로 파송 받아 목회하였고, 이듬해 조선연회에서 서리 목사가 되었다.

중앙기독교청년회의 간사이고 평양 숭실학교 동창생이자 서울 종로교회의 동료 전도사였던 박희도의 권유로 30세의 김창준이 1919년 삼일운동 이틀 전인 2월 27일에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33인 중 가장 어린 나이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독립선언서 배포에도 참여했다. 3월 1일에 인사동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21년 12월에 가솔출하였다. 서울 종로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 1922년 9월에 조선연회에서 그는 정회원 목사가 되었다.



김창준 목사
고 한인교회가 조직된다.

1919년 시카고에 한인 기도가 시작됐다. 1923년에 시카고에 남쪽의 유학생 기도와 북쪽의 한인 이민자 기도가 등 두 기도가 있었다. 시카고 한인교회는 그해

1924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서부 청년회 강당에서 교회 설립 예식이 있었다. 일동이 224장을 부른 후 사회자 염광섭이 기도하고, 강영소가 교회 설립 취지를 알린 후 김여택이 주악을 하였고, 연보를 한 후 차의석의 성경 봉독에 이어 광성학교 교장 김득수가 말씀을 전하였다. 이후 오한영의 독창과 하와이 청년회 총무 이태성의 축사가 있고 난 뒤 교회 설립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일동이 140장 찬송을 불렀고 각 단체 대표자의 축사가 있었으며, 일동이 3장을 찬미한 후 모임을 마쳤다.

예배 후 선거위원 8인을 공천하여 행정부와 이사부를 조직했다. 김창준을 목사로 선임하고, 전도목사에 조희영 목사, 전도사에 염광섭과 장세운, 회계에 박 필과 이병두, 종교부에 강혜순, 사교부에 김원용과 황창하, 음악부에 오한영과 박리근, 서무원에 차의석으로 행정부를 조직하였다. 이사부에는 부장에 김 경, 서기에 김원용, 재무에 양재형과 박장순이었으며 이사무원에 김 경, 김원용, 양재형, 박장순, 강영소, 차의석 그리고 황 유희였다.

그 후 시카고 남쪽의 유학생 기도가 북쪽의 이민자 기도로 시작한 시카고 한인교회에 합병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 설립예배 다음 달인 8월 24일에 시카고 한인교회는 교회보 제1호를 발간하였는데 이날 아유회가 있었다. 에번스틴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35명이 모였는데 부인이 4명이며 여학생이 2명이며 어린이가 4명이었

나고, 화인 사모가 설교했고, 덕손이 그의 부인의 풍금 소리에 맞춰 찬송을 불렀고, 락우드가 설교를 하였으며, 핫필드 여사가 풍금 독주를 하였고, 앤더슨 박사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리고 10여 명의 어린이와 본 교회 설립에 공헌한 미국인 친구 제씨에게 예물을 주었다.

2부는 여흥회였다. 그날 9시 반부터 시작하여 11시경에 마쳤다. 이날 준비한 한국 음식은 평양 국수, 서울 장국밥, 경상도 대구 자반, 제주 용마탕, 전남포 이삭떡, 원산 명태 자반, 만경 만두국, 송도 송편, 금포 김치국과 5백년 이시조의 이밥 등이었다.

아직 조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으나 조국을 사고하며 벌써 동포애란 것을 자각하였다. 아 참 귀엽다! ... 동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자기 사랑 사서 먹을 돈을 다 열심히 내어놓았구나!! 동포여 이 아이의 자비심, 동포애가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가!...

1925년 10월 미국 북감리교 내지 선교부는 시카고 한인교회를 내지 선교교로 결의했다. 본 교회는 시카고 인근 외국어사용 열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써 지원금으로 500달러를 마련했는데 정정보조금은 아니었다. 내지 선교 감리사인 탐스 박사에게 한인교회의 처리를 일임했다. 이러한 관계는 2년간 계속되었다.

이듬해 새해 하오 6시에 시내 중국인 와싱턴 카페테리아에서 70여 명의 동포가 신년 축하회를 열었다. 이날 김창준은 '내 동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의 설교 전의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애국가 합창, 양 득과 김 경의 개회사, 염광섭의 '각지에 당하는 송구영신', 박태화의 '세 가지 소개' 독창, 황에스더의 '신년 신월 신일'이라는 설교, 박리근의 '기성 8경' 독창, 차의석의 '소원 타령', 홍영태의 '떨어진 소나무', 로준택과 장세운과 김병선과 김술근의 '우리 소리', 그리고 신년의 신법령이 있었다. 김창준의 설교 후 홍영태가 작별가를 부르고 이어서 여흥회가 있었다.

미국인 예배당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한인의 힘으로 예배당을 장만함이 뜻밖의 일로 여겨 본 교회 이사부 김일선의 제안으로 1926년 9월 9일에 예배당 건축 기공식을 모기로 하고 위원장에 김일선, 경리부장에 김 경, 감독에 차의석, 진행위원회에 오천석과 이매세 등 5명에게 맡겼다.

김유진

1925년 1월에 조국의 기근으로 3백여 명이 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달 18일 주일에 김창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까지 읽고 말씀을 전했고, 교인 황 휴가 작년에 한재와 수재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남녀노소 교인과 그 후 헌금한 총구제비 309달러 62센트와 헌금을 한 인원과 중국인 그리고 백인의 이름과 금액을 소상히 소개하면서 그는 그달 12일에 "참 귀엽다! 어린이"라는 글을 아래와 같이 '신한민보'에 기고했다.

"지나간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 이사부장 김 경 씨의 주최로 본국에 환란 당한 동포들을

1924년 게렛신학교 입학, 시카고 한인교회 설립 초대목사로 3년 사역 귀국후 종로교회 담임, 감신교수 6년, 해방 후 만주서 귀국, 6.25 월북

10월 17일에 모인 북쪽 한인 이민자 기도가 개최한 공동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 설립을 결의한 이날 서백원, 강영소, 장세운, 강정근, 최흥원, 강혜순, 이명우, 김형린, 박리근, 박장순, 김승제, 김 경, 염광섭, 그리고 백인교회인 제3장로교회 부인회 등이 111달러를 헌금하여 교회 설립을 후원하였다. 이날 쓴 경비 11달러 83센트와 미봉조 15달러를 합하니 잔액이 84달러 17센트였다.

1924년 7월 23일 김 경, 시카고 학생회 회장 염광섭, 강영소와 하와이 청년회 총무 이래성이 택플 빌딩에 있는 교회 연합회 사무실의 미국인 선교 총회 회장이자 게렛 신학교 교장이었던 호겔트 박사를 면회하였다. 이날 호겔트 박사는 오는 주일부터 임시로 예배를 시작하되 예배당은 지정하여 알려줄 것이고, 선교부가 목사의 사례비를 책정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이같이 많이 모이기는 시카고 한인 역사의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해 12월 29일 하오 7시경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탄 경축과 송구영신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이날 내한 선교사였던 가필드 앤더슨 박사 내외, 뉴욕 YMCA 총무 E. H. 락우드, 시카고대학 청년회 위원 B. W. 디슨 내외, 시카고 장로교 목사 브라운 박사 내외, 한인교회가 빌려보는 미국인 교회의 화인 사모, 위의 미국인 교사로 솔리스트 체니 여사가 참석하였고, 근자에 유학은 노동쟁과 팍 대학생인 김마리아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1부에 만찬회가 있었다. 조희영 목사가 기도한 후 김창준 목사가 경축사를 하였다. 이후 브라운 박사가 설교했고, 핫필드 여사의 풍금에 맞추어 체니 여사가 성탄 창가를 불렀으며, 김 경이 화인 박사의 축사를 대신

위하여 우리가 뜨거운 동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말한 후 결국 당장에서 25명 교인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106달러가 걷혔다. 한 아이가 있는데 이름은 김유진이다. 연세는 겨우 여섯 살이다. 이 아이가 자기 지갑 속에 있는 1달러 지폐를 가지고 강단 앞으로 나오면서 영어로 하는 말이 '나도 내 민족을 위하여 이 돈을 바칩니다' 하였다. 이 여섯 살 먹은 아이의 말 한마디가 일반 청중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얼마 후에 다시 자기 지갑을 가지고 강단 앞으로 나와 자기의 가졌던 동전 은전 전부를 다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좀 더 있었다면 불쌍한 내 민족을 위하여 주겠는데 이밖에 없습디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필자는 중심에서 솟아나는 감격에 눈물이 마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아이는 아메리카 출생이요 그 모친께서 아메리카 부인이시니까 아직 본국(미국) 밖은 배울 길이 없고 다만 영어로 할 뿐이다... 이 아이가

귀국

1926년 6월 김창준은 게렛 신학교에서 2년간 21개 과목을 이수했고, 한인 목회를 12학점으로 인정하여 신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해 12월에 귀국하였다. 그의 선교 활동은 헛수로 3년이었으며 시카고에 거주하는 교인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하여 모여든 한인 유학생까지 섬겼다.

귀국한 김창준은 도미 전 목회했고 당시 대학생 교회로 이름난 서울 종로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가, 1933년부터 신학교가 폐교되던 1940년까지 6년간 감리교신학교의 전임교수로 가르쳤다. 이후 만주 장춘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조국이 해방되어 귀국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6.25동란 후 월북하여 1959년 5월 7일에 뇌일혈로 향년 70세로 별세했다.

damien.sohn@gmail.com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

김창준이 1924년 6월에 미국 감리교 동양 감독과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미국 시카고 인근의 게렛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해 7월 23일에 김 경, 김원용, 강영소 등 시카고 거주 지방 인사가 그를 위하여 환영회를 열었는데 이 일로 김창준을 중심으로 시카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7:00 금요일아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3,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6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www.seongsil.or.kr Tel. (82)2-992-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8-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340-1(131-231)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치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고려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현리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리더십 코멘터리 (93)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의 심표와 심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뜰 흘러 최선을 다해 주고 했던 리더에게 휴가는 하늘이 내려주는 고귀한 선물이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위험하다. 삶의 터전에서 리더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써 일하고 온전히 쉬는 것이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려면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휴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

여자 엘비스 프레슬리
1950년대와 6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카니 프랜시스'(Connie Francis)라는 여가수를 기억하는가? 여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애칭을 가진

새 삶을 얻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리더도 바쁘게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보다 지혜롭고, 건강해지며, 새로워져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여름철이 되기를 바란다.

휴가는 창조적 심표
리더의 휴가는 휴식이 아니라 창조적인 심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심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글이 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휴가 통해 여유 갖고 과거 되돌아보며 미래 계획 하나님 자녀로 가치 깨닫고 가치관 바로 잡는 것

만큼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우리에게 "V-A-C-A-T-I-O-N! In the summer sun"이란 가사로 시작하는 '베케이션'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베케이션'이라는 노래가 70년대 바캉스 철이면 라디오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곤 했다.

원래 바캉스란 말은 프랑스어로 '비운다'라는 뜻이다. 여름철이 되면 파리의 시민들이 거의 모두가 며칠씩 혹은 한 달씩 집을 비우고 휴가여행을 떠나서 파리 시내가 텅 비어짐으로 인해 생겨난 말이다. 언젠가부터 바캉스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름에 휴가를 못가면 무슨 큰 억울한 일이나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와서는 교통전쟁, 인파전쟁, 쓰레기전쟁, 무질서전쟁에 지쳐서 휴가가 전보다 더 지치고 피곤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다.

휴가는 단순히 바캉스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뜻을 지닌 휴식이다. 휴식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영혼의 상처와 피로한 심신을 회복하고

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시23:2).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인생이 쉽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가치관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인생의 바쁨의 스트레스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휴식과 친숙하지 못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을 통해 우리를 휴식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인간에게 쉴 곳이 필요하고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터를 찾아가 쉬도록 창조되었다. 음악에도 심표가 있어서 심표를 따라서 반 박자나 한 박자 혹은 두 박자를 쉬게 되는데, 마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인간의 삶의 리듬은 '심표와 심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에게는 심터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쉴 곳을 발견하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휴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휴가 후에는 더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휴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시간
지금 휴가를 떠나려는가? 휴가를 통해 머리속의 불필요한 정크(junk)를 비우고 뇌를 가볍게 만들라. 휴가를 통해 여유를 갖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하라. 지금까지는 열정적으로 놀기를 즐겼다면, 이번 여름엔 나를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데 의미를 두도록 하자. 그러나 휴가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휴가를 통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휴가가 끝난 후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보람이 넘치는 생명력을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휴가는 단순히 놀고먹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심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리더에게 휴가는 단순한 피서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 시간이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시간으로 자연과 이웃 모두를 기뻐하는 휴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인생의 영원한 심터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리더가 워커홀릭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sondongwon@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창조적 소수

이 세상에는 75억이 넘는 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유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 소수의 창조적인 삶으로 인해 아니, 그런 소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그만의 이야기를 써 가시는 것이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산꼭대기에도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노리개였을지도 모른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무모했는지 모른다.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애굽 왕자의 자리를 핍박을 받는 동족과 맞바꾼 모세는 어리석었을 수도 있다. 불확실한 꿈을 자랑하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참 많이도 억울했을 것이다. 무엇인가 하나쯤은 빠지고 모자란 듯한 그러면서도 나름 똑똑하고 잘난 이들이 하나님께 쓰여지며 자신의 흔적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써갔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복과 인정하신 다윗 왕과 지혜를 구하였을 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덩어리 받은 솔로몬,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겨워서 거뜬히 이기고도 로렐나무 아래에서 벌벌 떠는 엘리야와 바람난 아내를 반복하여 용서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증명한 호세아,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던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마땅히 가야할 곳에 보낼 자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나를 보내시라며 자원을 이사야 등은 분명 창조적 소수에 해당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이방선교의 문을 연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한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한 순교자들과 선교사들도 창조적 소수임이 분명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롭고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며 주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들도 창조적 소수에 속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원죄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질투,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다 버림을 받은 사울, 원수의 회복을 볼 수 없어 도망치려던 요나, 기대와 희망이 깨지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그러나 소비적 소수에 해당이 된다. 진리가 아닌 것에 연연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이름을 팔고 있는 목사들과 장로를 비롯한 종교인, 소빙하듯 이 교회 저 교회를 섭렵한 채 열 손가락을 잡고 펴며 이해타산을 따지는 교인과 사꾼 목사들은 소비적 소수에 속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비적 소수가 점점 더 왕성해져(?) 소비적 다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자가에서 죽으시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과 구별하는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침노되어 진실로 진리를 대언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정도가 아니라 거짓 기독교를 빌자하여 참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상조차 모르고 있다. 소비적 소수를 넘어 파괴적 다수로 나날이 부패해 간다.

창조적 소수는 기꺼이 한 알의 썩어질 밀알 됴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신을 태우며 불을 쬐어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친다.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 문전박대를 당하며 심하면 오물을 뒤집어쓰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가 없다.

창조적 소수는 주님께서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도 이를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에게 헌신하며 사랑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영어를 잘 한다 하여 미국인이 될 수 없듯 선을 행한다 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자격이며 조건이다. 창조적 소수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는 자들이다.

hanmac@cni153.or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망양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운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새사라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3:2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7: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환근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목회서신

“존재 의미”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최가 사람들에게 남긴 나쁜 유산 가운데 하나는 존재 의미를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일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학위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했을 때 존재 의미를 느끼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존재 의미를 느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존재 의미를 느끼고, 운동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존재 의미를 느끼고,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의 실적이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 존재 의미를 느낀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땅에서 사다다리를 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것과 같다. 땅에서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오고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방식이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도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인생을 통째로 속고 사는 것이다. 세월 앞에 인생이 멈추는 때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속임 당하는 인생을 멈추라.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렇

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 복음의 방식은 정반대를 가리킨다. 기독교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성공과 성취로도 하늘에 오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기독교 복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속주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 부인한다. 세속주의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지워내려고 시도한다. 수많은 인터넷 뉴스와 신문들 그리고 텔레비전 등에서 가난한 하나님의 선택을 제거하려고 한다. 몇년전 필자와 가

까운 목사님께서 저의 글들을 잘 알려준 어느 출판사에 소개를 하여서 출판을 도우려고 하셨던 적이 있다. 출판사에서 저의 글에 대한 원고를 리뷰한 이후에 돌아온 답변은 저의 글의 방향이 자신들의 출판 취지 가운데 하나인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보냈던 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원색적으로 즐기게 이야기하지기 때문에 찾는 독자들이 적어서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이 적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였다.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선 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세속주의가 기독교 조직과 단체들 안에도 여지없이 스며들어온 결과이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과 초월성 등을 부인하므로 하나님의 실체를 없애 버리고 단지 도덕적인 교훈만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한 인간 예수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고의 발생

인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아이큐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고와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고와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와 지옥 형벌의 저주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한 장소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주시므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통하여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옥 형벌의 저주를 아래 놓았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하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당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다. 당신에게 인생의 존재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은 학위의 달성도 아니며, 직장의 승진도 아니며, 비즈니스의 성공도 아니며, 올림픽에

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아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존재 의미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죽음이 가까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인생의 존재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노력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노력의 결과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실일 뿐이다. 당신의 존재 의미는 현실의 표면적인 현상들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 의미는 현실의 현상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의 존재 의미를 가지므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현실의 표면적인 현상들을 뛰어 넘어서 내일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가 보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금지 및 처벌조항이 삽입되어있는 거주 ACR 99결의안 반대를 위한 남가주지역 교계지도자 초청 설명회 및 서명식에서 참석하신 목회자들이 서명하고있다

“가주 ACR 99 발의안 반대해야” 남가주 지역 교계지도자 초청 설명회 및 서명식

가주 ACR 99발의안 반대를 위한 남가주 지역 교계지도자 초청 설명회 및 서명식이 7월 24일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가주 ACR 99 발의안은 동성애나 성전환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반기독교적 친동성애 민주당 당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TVNext 사라킴 사모는 “ARC99 결의안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묵사와 성도들을 막아서는 결의안이자 악이 선이 되고 선을 악이 되는 게이트가 열리는 결의안”이라며 “이 결의안은 인권운동을 빙자해서 나온 것이다. 가주 ACR 99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만이 아닌 미 전역

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설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유해한 법안이다.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에게 성경부인을 강요하는 악법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키는 주원인이 될 것이다”이라 말했다. 김태오牧사는 “ACR 99가 통과되면 교회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LGBTQ들은 인권을 이야기하며 ACR 99를 만들었다. 하지만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묵살시키려 한다. ARC 99는 동성애 같은 죄악을 교회가 침묵하게 하는 것이며 억누르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각오하며 친동성애 법안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ACR 99의 부결을 위한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남가주와 북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 지역 교회가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ACR 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전문치료(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 등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결의안으로 이미 거주하원에서 통과됐으며 거주상원에서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ACR99 결의안은 발의안으로 상정되며, 발의안이 거주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면 계빈뉴섬 거주 주지사가 발의안에 대해 사인함으로 법안으로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동성애 반대운동이 법적 제재를 받고, 목회자가 예배나 상담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 특히 목회자나 상담가, 종교인 및 교육자들이 성경을 따라 ‘동성애는 죄, 또는 비정상 혹은 잘못’이라고 설교하거나, 설득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면 법적 제재를 받고, 목회자의 경우 감옥에 가거나 교역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박준호 기자)



충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주최로 열린 충신대학교 이재서 총장과 충신 동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충신대 사유화 막고 총회직영 되도록” 충신대 이재서 총장과 충신동문 간담회

충신대학교 이재서 총장과 충신동문 간담회가 7월 2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서 총장(77회)은 자신이 총장이 되는 과정과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30일 총장으로 취임했다”며 “축하와 덕담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사 일정이 마비될 정도로 충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대위가 구성될 정도였는데 그 과정 속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총장이 돼줄 것을 요청했다. 총장취임 권위를 처음에는 놀리는 것 같아 언짢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놀라운 것은 1차 심사부터 최종심사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심사에서 총장 후보 중 1위로 지지를 받았고 10명의 재단이사회의 최종심사에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재서 총장은 “충신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온전한 학교가 되길 기도했다. 총장인 저를 중심으로 학교의 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충신의 정상화를 위해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 이재서 총장은 “충신의 문제는 사유화가 된 것”이라며 “원래 충신은 총회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학교정

관상 총회와 무관하게 개정된 것이 문제다. 총회 이사회에 학교의 신학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감리교인이 총신 이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15인으로 구성된 정상화 위원회에서 개정작업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가 학교를 직영하는 형태로 학교가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 총장은 “4년이라는 총장 임기동안 어떤 업적을 남기려 하든 보다는 과정이 아름답게 운영하고 싶다. 잃어버린 관계 회복, 투명한 운영,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매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많은 격려와 기도, 그리고 실수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따끔한 야단과 충고 바란다”고 말했다. 부회장 지윤성 목사(66회) 사 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양종석 목사(80회) 기도, 장상근 교수(교무 89회) 특송, 총동문회장 김경일 목사(84회) 인사말로 이어졌다. 김경일 목사는 “신인 이재서 총장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고 영광이다. 분열된 충신이 통합발전, 화합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된다. 총장임기가 좋은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혜성 목사(1회)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재서 총장은 30일 오전 미주북음방송에서 기독교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미기총 총회 남가주에서 연다

8월 19일(월)-21일(수) OC 갈보리새생명교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심평중 목사, 이하 미기총) 제 21회 정기총회가 오는 8월 19일(월) 오후 12시부터 21일(수) 오후 2시까지 남가주 오랜 지카운티 갈보리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내정된 민승기 목사는 “이제 장년이 된 미기총은 설립 목적인 교회일치와 화합, 봉사와 연합 및 한인민교회 비전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더욱 힘쓸 것”이라며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역량을 모아 연합 사업을 더욱 증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 목사는 이어 “미기총은 미

주 지역의 교회 협의회 대표와 각 교단대표, 증경 교단장 등의 회원으로 참여한 단체”라며 “한국 개신교 교단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는 첫날 개회예배 및 임원회에 이어 둘째 날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 임원단을 선출하게 된다. 총회에서는 △통일선교전략 △난민선교전략(무슬림선교) △북미 목회자 양성 및 북미 신학현황 등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세미나와 더불어 통일기도회도 함께 진행되며, 세계기독교총연합회 최낙신 목사, 사 무총장 신광수 목사, 한국교회 연합 회장 권태진 목사, 최귀수 사무총장, 일본협의회 대표

이상렬 목사와 북미 각 주에서 1대 증경회장인 박희소 목사를 비롯한 증경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는 고 심학구 목사(3대), 한기형 목사(10대), 송정명 목사(13대), 한기홍 목사(16대) 등이 미기총 대표회장으로 섬겼다. 한편 미주 4,500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미기총은 미주 한인교회의 일치, 화합, 선교, 봉사, 연합사역을 위해 21년 전에 태동해 지금까지 미주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미 전역의 125개 교협들이 함께 모여 미주한인교회 11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각 지역 교협의 지난 20년 역사를 정리해 ‘미기총 20년 발자취 이야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크리스천문헌회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주크리스천문헌 제33회 신인 등단 시상식

미주크리스천문헌협회(회장 정지윤 목사) 제 33회 신인 등단 시상식이 7월 27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가졌다. 1부 예배는 정지윤 회장의 사회로 정찬군 목사(예심장로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숙영 사모가 특송을 부르고, 김재울 목사(나성소망교회)가 설교했다. 설교 후 송택규 목사(로랜드

대학교 부총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는 류민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하면서 정지윤 회장이 등단해 인사말을 하고, 류 부회장의 사회로 최선호 목사(시인평론가), 하정아(수필가), 김상분(소설가) 씨가 각각 심사 과정과 심사평을 하고 정권수 선 교사와 방동섭 목사, 김복임(동양화가) 씨가 작품 심사평을 하고, 김장진, 홍경애, 박미혜, 홍

유리 씨가 낭송을 하고, 이산하 씨가 동시를 낭송했다. 이어서 윤덕환 씨가 수필을 낭독하고 김용섭 장로가 특별 초청으로 ‘New Raise up’ 하모니카 연주를 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조성건 외 5명의 중창 후 수상자들이 등단해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김창호 목사(기독교스 LA지 사장)가 마침기도와 오찬기도를 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 김장진(귀향), 가작: 홍경애(겨룩하신 예수), 장려상: 박미혜(나의 기도), 홍유리(마침표가 쉽표를 부르는 날에) △수필: 이희숙(열쇠 예찬), 가작: 윤덕환(대서양 일출 보기), 장려상: 김대웅(초대하지 않은 손님) △소설: 당선작 없음 가작: 손문식(회복) △동시: 이산하,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목양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
 뉴욕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 은퇴 원로목사 추대 및 허신국 담임목사 취임식이 8월 18일(주일) 오후 5시 목양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3570999

제 29기 뉴욕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주관하는 제 29기 뉴욕실버선교학교가 8월 26일(월) 오후 8시(7시 저녁식사) 개강예배를 드리고 2019년 가을 학기를 시작한다. 장소는 선한목사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이며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같은 장소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오는 11월 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도미니카로 단기선교가 예정돼 있다.
 ▲문의: (917)936-9356 김경열 훈련원장

뉴욕열방교회 안혜권 목사 이임예배
 뉴욕열방교회 안혜권 목사 이임예배가 8월 11일 오후 5시 본 교회당(263-10 Union Tpke, Glen Oaks)에서 열린다. 안목사는 1998년 2월 본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담임으로 사역해왔다.
 ▲문의: (718)343-1593

2019 예수동행 세미나
 2019 예수동행 세미나가 유기성 목사(한국 선한목사교회 담임)를 강사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또 연합집회도 열린다. 세미나는 △뉴욕=스태튼아일랜드교협과 워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워지엔) 주관으로 9월 6일(금)-7일(토) 뉴욕만백성교회(담임 이종범 목사)에서 열린다. △뉴저지=9월 16일(월)-18일(수)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뉴저지연합교회와 워지엔 주관으로 열린다. 강사는 유기성 목사, 김승희 목사, 박리부가 사모. 참가대상은 목회자, 사모, 선교사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는 80달러. 접수마감은 8월 26일(월). 한편 연합집회는 뉴욕은 같은 장소에서 6-8일 금, 토 오후 8시, 주일 오후 5시, 뉴저지는 같은 장소에서 13-14일 오후 8시에 열린다.
 ▲문의: (718)701-4953 뉴욕 이종범 목사, (201)816-1284 뉴저지 이재필 목사

아동부 전도사 청빙
 미국장로교 소속 뉴저지 은혜와사랑교회(담임 소기범 목사)가 아동부 전도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M.Div. 학위소지 혹은 재학 중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race-lovechurch@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522-3011 목회부장

뉴욕그레이트네교회 VBS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VBS가 8월 16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Roar! Life is wild-God is good" 주제로 열린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주일은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참가대상은 3세부터 5학년까지이며, 첫 자녀는 20달러, 둘째 자녀는 15달러, 셋째 자녀는 무료. 등록마감은 8월 4일.
 ▲문의: (862)246-9562

김형훈 목사 별세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6대 총회장과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 7대 회장, 뉴욕한인연합신학원 학장을 역임했던 김형훈 목사(사진)가 7월 27일 오전 10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30일 뉴욕에일장로교회에서 임관예배와 31일 제미장 의사에서 발인예배를 드렸다.



뉴욕교협 이사회가 초청한 할렐루야대회 관계자 위로회에서 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이사회, 할렐루야대회 관계자 위로회

뉴욕교협 이사회(이사장 손성대 장로)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뉴욕교협 임원진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관계자들을 초청, 엘리펀트 파크에서 위로회를 가졌다. 이사회가 준비한 오찬을 갖기 전 드린 예배는 유영진 목사 인도로 기도 순송대 장로(이사장), 설교 정순원 목사(교협 회장), 광고 이창중 목사(교협 서

기), 축도 이만호 목사(교협 직전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이날 위로회를 마련한 이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받기보다 사랑을 전하는 교협이 되자고 부탁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아사도로 총무 이은수 목사가 준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회자기도회 7월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뉴욕목회자기도회 7월 기도회

뉴욕목회자기도회(회장 박이스라엘 목사) 7월 기도회가 7월 24일 오전 10시30분 새소망승리교회(담임 박이스라엘 목사)에서 열렸다.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설교는 이준성 목사(양무리교회 담임)가 "착각"(살전5:19-22)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준성 목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떨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본문을 강조하며 "우리 목사들도 인간이기에 착각할 수 있다. 목사도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또 타인이 그것을 알게 된다"며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예언은 말씀인데, 목사들도 말씀을 잘 풀지 못한다.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 했는데 입에서 악한 말을 한다"며 "우리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러 모였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 삶이 말씀에 합당한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삶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합심기도는 이창중 목사(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을 위해), 이준성 목사(미국과 선교사를 위해), 전영성 목사(교계와 교포사회를 위해), 박이스라엘 목사(뉴욕목회자기도회를 위해) 인도로 한 제목으로 기도했다. 전영성 목사 축도 후 회무처리로 들어갔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목회자기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회원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기도회는 21일(수)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유원정 기자)

개혁장로교신학회, 제1차 콜로키움 개최

8월 20-22일, 개혁주의&장로교 신학, 한국어 진행

한인 개혁신학자 및 목회자들이 개혁장로교신학회(KRPTS)를 조직하고, 첫 학회 모임으로 제 1차 콜로키움이 8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열린다. 개혁장로교신학회(KRPTS, The Korean Reformed And Presbyterian Theological Society)는 미주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신학연구 및 내용을 나누기위한 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 및 장로교(Reformed and Presbyterian)이며, 모든 토론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개혁장로교신학회 운영위원회는 강영안 교수(회장, 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 김도원 목사(시애틀은누리교회 담임, 전 콜로라도크리스천대학 신약학 교수), 김은진 전도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 역사신학 강사), 이강택 목사(뉴잉글랜드 은혜교회 담임), 방삼석 목사(새인트루이스 온누리장로교회 담임), 최재만 목사(토론토 한우리교회 담임), 조영천 목사(아틀란타 새교회 담임), 홍승민 교수(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부교수) 등이

Christology: Voices from Wilderness" 등이 진행된다. 회장 강영안 교수는 기독교 철학자로 서강대학교 교수 및 고신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은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현재 미시건 주에 위치한 칼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로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강사로 참가한 임창하 교수는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로 올해 미국교회사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바 있다. 21일(수)은 △김준원 목사 "예배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한 하나님 나라와 성경적 언약 공동체" △김동수 박사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사상" △"티모티 켈리의 '도시 중심에 있는 교회' 모델과 개혁주의의 두 왕국론의 발전인가? 변화인가? 비교 연구" △전정구 박사 "모세 언약과 구속적 심판"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또 저녁에는 주강사인 강영안 박사와 임창하 박사 등이 참가해 "한국/한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2일(목)은 △김경문 목사 "신학적 도표를 사용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 △권오창 목사 "지혜자로서의 여호와와의 중: 마태복음 12:18-21에 인용된 여호와와의 종의 노래(사42:1-4)에 관한 연구"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등록비는 회원과 비회원, 그리고 일반과 학생으로 나눠 무료에서 50달러. 제1차 콜로키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KRPTS.usa)에서 볼 수 있으며, 문의는 contact.krpt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1차 콜로키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며 주강사는 강영안 박사와 임창하 박사(밴더빌트대학교 기독교역사 교수)이다. 8월 20일(화)은 △오프닝 토크 강영안 교수 "Credo: 신앙고백적 지식은 가능한가?" △주제 강의 임창하 교수 "Toward a More Holistic

and God"라는 주제로 열리며 주강사는 강영안 박사와 임창하 박사(밴더빌트대학교 기독교역사 교수)이다. 8월 20일(화)은 △오프닝 토크 강영안 교수 "Credo: 신앙고백적 지식은 가능한가?" △주제 강의 임창하 교수 "Toward a More Holistic



7월 뉴욕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어머니기도회 설교 이용걸 목사

GKWPA 어머니기도회 7개국에서 진행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GKWPA) 중점지역 중 세계 여성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인 어머니기도회가 무더운 날씨인 7월에도 변함없이 진행됐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동일한 표어를 내걸고 콜롬비아(회장 김혜정 선교사) 한국대구(회장 신동숙 원장), 니카라과(회장 김연희 선교사), 과테말라(회장 박윤정 선교사), 엘살바도르(회장 황은숙 선교사), 뉴욕(회장 심화자 목사), 파라과이(회장 이명화 선교사) 등 7개국에서 말씀과 기도와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32차로 진행된 뉴욕어머니기도회는 무더위 속에도 50여

명의 어머니들이 참석해 이용걸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과 나라와 민족, 미국, 글로벌여목, 글로벌뉴욕여목, 가정과 자녀 사역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2020년 선교지 연합기도성회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3개국에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8월 뉴욕어머니기도회는 신동숙 원장(대구어머니기도회 회장)을 강사로 28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GKWPA)



패밀리캠프와 청소년 리더십 훈련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패밀리캠프 & 리더십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성숙 박사)가 주최한 패밀리캠프와 청소년 리더십 훈련 세미나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뉴저지 HNA 팰리세이드 프리미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가족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패밀리캠프는 킨더가든부터 7학년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리더십 캠프는 9-12학년을 대상으로 열렸다. 패밀리캠프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주제로 가족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법을 배우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법에 대해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미니올림픽, 가족토크 만들기, 실내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활

동 시간을 가졌다. 총 14가족(32명의 어린이와 28명의 어른 총 60명)이 참여했다. 리더십 캠프는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미래 리더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7가지 습관을 다양한 배경, 경험의 또래들과 그룹토론, 강의, 게임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 청소년기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총 25명의 학생들이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지에서 참여해 습관을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을 배웠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2019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

9월 10일-12일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2019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이 9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간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다.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약 70여명의 통일선교 사역자들과 기도 헌신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은 한반도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통일선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서밋을 준비하는 시카고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이번

서밋이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통일선교역량을 연결해 효과적인 통일선교 정책 토의를 진행해 복음적 통일을 위한 연합 선교전략과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이번 서밋의 영향으로 한국을 위시해서 한민족이 살고 있는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적 통일을 위한 연합적 기도운동이 더욱 활발히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prblessnk@gmail.com

문화복지NGO 이노비 여름공연 일정발표

문화복지 NGO 이노비(EnoB)회장은 강태욱)가 맨해튼양로원 거주 어르신, 브롱스 호스피스 병원 입원환자와 가족, 퀸즈 거주 한인 어르신, 맨해튼 입원환자와 가족, 뉴저지 양로원 거주 어르신, 맨해튼 어린이병원의

환자와 가족 등 가장 위로와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 이들에게 맞게 편곡한 클래식, 뮤지컬, 가요를 준비한 콘서트와 플라워 힐링 클래스를 준비했다. ▲7월 29일: 맨하탄 양로원,

경로회관, 음악감독 심어 김후나, 재외동포재단 후원 ▲8월 9일: 메모리얼슬론케터링센터, 음악감독 피아니스트 김해린 ▲8월 15일: 뉴저지 버킹엄 오페라 하우스 은혜가든 양로원, 광복절 콘서트, 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오경철, 재외동포재단 후원 ▲문의: enobinc@gmail.com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남가주교협, 충현선교교회서 7월 순회헌신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이하 남가주교협)는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7월 순회 헌신예배를 28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총무이사 김태일 집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남가주교협 부회장 최대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민종기 목사가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마 17:1-8)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종기 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하시길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함을 말씀하셨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낮아짐과 비유심은 비참한 절망이 아닌,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주관 순회헌신예배에서 민종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민 목사는 "교회를 통해 이민 사회 대표하는 일하고 있다. 교협 통해 영적으로 이민사회가 바로잡혀가길 바란다"며 "회를 거듭할수록 믿음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 교협 되길 축원한다"

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안신기 목사 사회로 열린 2부 예배는 베이스 이사야 집사

의 특송으로 시작, △미국과 조국의 사회적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남가주 지역교회 갱신과 영적부흥을 위해 △차세대와 동성애 극복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김희장 목사(말씀새로운교회), 권석기 장로(남가주 교협이사), 장성호 목사(Charis mission church)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기도회에 이어 1970년대 한국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이상열 장로가 간증했으며, 이사장 김항로 장로가 인사했다.

한편 남가주 교협은 남가주 지역 8.15기념 연합예배 및 음악회를 오는 8월 11일(주일) 오후 4시,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개최한다고 알려져 남가주 지역교회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909)677-0028 총무 안신기 목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CWM양육교재 특강

Christ Witness Mission(CWM)이 주최하는 양육교재특강이 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열린다. 교역자, 사모, 평신도 모든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의 수강료는 20달러(양육교재, 전도지, CD)이다.

▲ 문의: (714)371-6406, (310)749-7522

그레이스미션대 정부학자금보조 신청 무료공개강좌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정부학자금보조 신청 무료 공개강좌를 8월 6일(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정부학자금보조 신청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절차, 기간, 및 주의할 점, 질문과 답변 등에 대해 다뤄진다. 강사는 GMU 행정처장인 제임스 구 교수와 신디조 FSA 전문가

▲문의: (714)525-0088(본교), admissions@gm.edu

최석호 의원 재선 후원의 밤

가주하원의원 최석호 집사 재선을 위한 후원의 밤이 8월 3일(토) 5시30분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949)590-0946

효사랑 시니어 대학 개강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이 8월 6일(화) 개강한다. 시니어대학은 2년제 과정이며 △힐링댄스 △찬양활동 △음악교실 △난타교실 △성경 파노라마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강의 △탁구교실 등 프로그램과 건강검진도 제공된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다. 등록비는 점심식사 포함 월 40달러.

▲문의: (562)569-1189

더섬기는교회 설립 감사예배

더섬기는교회(The Serving Community Church, 담임 김영일 목사)가 지난 7월 21일 오후 5시 남가주 온타리오 지역에 있는 집에서 4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설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미주예성) 미국서남지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1부 예배는 김영일 목사 사회로 잔 강 목사(지방회 부회장, 남가주새언약교회)의 기도, 김명진 집사와 김성진 사모의 특별찬송, 지방회장 오병의 목사(남가주펜텔교회)의 "더 섬기기도 남는 축복"이라는 제하의 말씀, 강정운 목사(올리브라이프교회)의 봉헌

특송에 이어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봉헌기도로 마쳤다.

이어서 2부 창립예식 및 위임식에는 양홍규 목사(굿프렌즈교회) 사회로 지방회장의 창립서약과 창립선언, 위임자 소개, 위임서약 및 공포,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와 김종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의 축사와 제임스김 목사(올리브 라이프교회)의 권면, 김영일 목사의 감사 및 인사, 박용덕 목사(미주예성 총회장, 남가주 빛나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문의: (510)778-4373 (기사제공: 더섬기는교회)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 주최 희망콘서트에서 에버그린 여성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우울증, 자살예방 정보제공 및 계몽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 주최 '희망콘서트'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CEO 키타 커리 박사 Didi Hirsch Suicide Prevention Center)와 함께 하는 '희망 콘서트'가 7월 28일 오후 5시 호산나교회(담임 강승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크리스토퍼전 한인서비스 담당자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보컬리스트 진용문이 '걱정 말아오 그대' '엄마를, 뮤지컬 배우 김은진이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을, 그리고 초대 보컬리스트 최형민의 '넌 할 수 있어'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산드라 로드리게즈, 연주자 강윤희, 준 박, 랜디 김이 멋진 연주를 들려주었다.

또, 에버그린여성합창단(지휘 노혜숙, 반주 고강희)의 아름다운 합창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강승철 목사가 마침기도했다.

크리스토퍼전 담당자는 "6년 전부터 희망콘서트를 해왔는데 그동안 해온 콘서트는 어려움 속에 공연해주셔서 한인 사회의 지력을 느끼게 됐으며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겼다"

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희망콘서트는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을 힐링하는 목적으로 열었다면 이번 콘서트는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대해 정보를 전해주고 계몽하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디디허쉬 자살예방센터는 디디허쉬 10개 기관 중 하나로 1958년 미국 최초로 시작했다. 사별상담 프로그램(Survivors After Suicide)와 SOSA(Survivors of Suicide Attempts)를 처음 개발하는 등 자살에 관한 교육은 미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본 센터의 교육은 한국의 국방부 소속 채플린들이 교육을 받을 정도다.

본 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디디허쉬 한국어 무료 전화상담은 1(877)727-4747이며 서비스 시간은 매일 오후 4시30분-새벽 12시30분이다.

이메일 mjun@didihirsch.org 웹사이트 Didi Hirsch Mental Health(https://didi-hirsch.org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자살 예방 상담가인 한국 CISM연구소 부소장인 이현아 교수가 자살 예방을 위한 위험신호 이해와 접근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현아 교수 자살예방 세미나 강의

월드미션대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및 상담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19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 및 상담세미나를 25일 오후 7시 개최했다.

최유정 교수 사회로 열린 입학설명회는 자살 예방 상담가이자 한국 CISM연구소 부소장인 이현아 교수가 '자살 예방을 위한 위험신호 이해와 접근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현아 교수는 "재미한인 자살통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높다"며 "2017년도 자살자수는 25-34세 1위이며, 35-44세, 44-54세 청장년층 자살률이 가장 높다. 노인은 20%인데 과소추진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살을 하는 자들은 △몰래 약을 모으거나 자살 도구 소지 △증오한 것을 남에게

주거나 주변정리 △죽음에 대한 관심과 자살계획 언급 △우울감 절망감 표출 △혼자 있고 대화 회피 △평소와 다르게 폭력 거친 행동 △경계력 상실로 인한 삶의 의욕상실 등에 대한 현상을 나타낸다"며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살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아 교수의 강의에 이어 각 전공별로 입학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9일에는 온라인자카운터에 위치한 OC상담대학원에서 입학설명회를 가졌으며 김경준 교수가 'ADHD 이해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박준호 기자>



제3회 죽음준비전문가교육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타주 거주자, 현직 간호사 대거 참석 소망소사이어티 제3기 죽음준비 전문가교육 실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올해로 3번째로 제3기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지난 7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렸다.

총 25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죽음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갖고 강의와 그룹토의, 그룹활동, 현장답사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강의 주제는 △죽음이란? △죽음 전후에 필요한 기관들 △구체적인 죽음 준비 △신체적 건강 △인지저하증(치매) △사별과 애도 △나의 인생으로 이뤄졌으며 강사로는 최경철 사무총장, 박혜수 샌디에고 지부교문, 장미미 임상간호사, 김미혜 사무국장, 남궁수진 간사가 수고했다.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은 제한된 수강인원으로 인해 늦게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 있는 교육이 됐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본인 뿐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 죽음준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제 3기 교육 참가자는 타주 참석자와 현직 간호사들이 많았는데 참석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타 주에서 참석했으며,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대거 교육에 참여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기독교의료상조회 주최 초청 목회자 건강세미나에서 내과전문의 김도영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보험보다 더 좋은 혜택 설명

기독교의료상조회, 김도영 박사초청 목회자건강세미나

기독교의료상조회(대표 박도원 목사 Christian Mutual MED-AID, 이하 CMM) 설명회 및 김도영 박사 초청 목회자 건강 세미나가 7월 26일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내과전문의 김도영 박사는 성인병에 대해 설명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위화조 CMM 홍보부장은 "미국에 살면서 비싼 보험료와 높은 디덕터블로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CMM의 프로그램은 월 40달러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한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CMM은 높은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으로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다. 회비는 40달러부터 175달러까지로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내교회 창립예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우측위 인물은 남상국 내교회 창립목사가 인사해서록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은혜 받는 교회

남상국 목사 유튜브 통해 내교회 창립

남상국 목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주와 한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예배와 성경 자료를 공유하는 내교회 창립예배가 7월 27일 오후 5시 갈보리 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남상국 목사는 성경의 연대기와 사건, 배경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낸 '나 놓고 기억 자물'을 개발해, '요한계시록과 아가서 성경공부'를 출판한 바 있다.

남 목사는 "12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세미나를 인도해왔다"며 "2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돼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함께 은혜 받는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내교회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남 목사는 이어 "오는 8월에



내교회 창립예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우측위 인물은 남상국 내교회 창립목사가 인사해서록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박준호 기자>

늘어나는 '약정현금' 분쟁, 솔로몬의 해법은...

거액 약정 후 변심 교인에 교회 강제집행요청 정당성 논란

A교회 교인 B씨는 교회 이전을 위한 대지 구입을 위해 현금을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담임목사의 일부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약정한 현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교회는 B씨에게 현금을 내라며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와 교인 간 현금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보다 많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으려면 교회가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교회는 교회 건축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중직을 맡은 교인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예배 광고시간 등에 얼마를 헌금했는지 공개하곤 한다. 이처럼 현금이 비자발적으로 사실상 강제된 경우 헌금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설교나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약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금이 유용됐으며 교인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약정현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현금의 성격 등을 두고 교회법은 물론 사회법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A

교회 B씨의 헌금약정에 대해서도 자연채무인지, 증여계약의 개념으로 보는 법률상 채무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법에서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라 정의한다. B씨가 약정을 이행하면 A교회가 현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B씨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A교회가 B씨에게 약속된 현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학교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약정이나 교회에 대한 신도들의 헌금약정 등 특별한 현금이 대표적이다.

A교회 사건 1심에서 법원은

교회헌금을 일반헌금과 특별헌금으로 구분했다. 일반헌금은 자연채무로 봤지만 약정현금은 계약상 채무로 소송에 의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헌금으로 봤다. B씨는 약정한 대로 현금을 드려야 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B씨의 약정현금을 자연채무라고 판결했다. B씨가 이행하지 않아 A교회가 소송과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법원이 현금을 자연채무로 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교회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 현금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조례 반대' 경기 도민연합 출범

39개 단체 3000여명 참석...경기도청 앞까지 행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경기도의 성평등조례에 반대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도민단체가 29일 출범했다. 건강환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상임대표 최승균 조급세 유만석 장항희 신옥균)은 이날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대한민국의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의기독교총연합회 등 39개 단체 관계자와 성도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

난 16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연합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인 ‘양성’의 평등을 동성애와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는 ‘성 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라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사무처 임명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도내 종교단체와 기업에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양성평등인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최승균 상임대표는 “그동안 이 같은 문제를 놓고 협의할 때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이를 깨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도민, 시민단체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기만행위이며 밀어붙이기식 졸속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출범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조례 반대한다. 도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청 앞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강나라(22·여)씨는 “평소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교회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청년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민연합 측은 “앞으로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위해 조례 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 청구 운동을 펴는 한편 다음 달 말에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 없어 모든 행사는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담임 목회 중인)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했다”며 “행사도 18차례가 아닌 서너 가지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뒤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 돈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천번이든 만번이든 한기총과 개인계좌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기총 행사를 하면서 후원계좌를 타 단체 계좌로 명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직원 월급도 두세 달 밀릴 정도로 적자라 (한기총 계좌로 받으면) 빚진 데로 돈이 빠져나가 행사 진행이 불가능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기부금 횡령” 전광훈 목사 고발

한기총조사위 “행사 치르며 거액 빼돌린 의혹” 경찰에 고발장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29일 기부금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 대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병순 목사 등 한기총 조사위원회 위원 6명은 서울 해화경찰서에 전 대표회장의 재정비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기총 조사위원장이 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전 대표회장이 한기총 주관으로 18차례 행사를 치르며 한기총 계좌가

아닌 개인 혹은 타 단체 명의로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기총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엔 ‘이승만 대통령 대학 설립 기금’ 60만원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본인 혹은 전 대표회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대국본) 통장에 입금됐다”며 “한기총 기부금이 본인의 임의단체로 들어가면서 한기총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체불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한기총 주최 행사임에도 타 단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상황을 밝혀달라고 하니 조사위원들을 해임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다. 한기총은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 곳이고 규정과 정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기총은 그간 행사를 적자를 봤다고 반박하는데 적자든 흑자든 일단 한기총 이름으로 행사를 했으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 사법 당국의 조사에 의해 자금 내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 회의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부터 한기총 재정이 바닥나 횡령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을 안 할

“무슬림선교 지금이 추수기, 일꾼 적극 파송”

지엠넷 4차 무슬림 사역 세미나

“지금이 추수기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활동해 온 선교 전문가 다수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에서 29일 막을 올린 지엠넷(GMNet) 제4차 글로벌 무슬림 사역 네트워크 공개 세미나에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장 경험과 선교 전략이 공유됐다. ‘증언자’들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20년 넘게 사역한 시니어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은 파키스탄이란 카자흐스탄 출신 회심자들과 함께 강사로 나왔다.

25년간 A국에서 활동한 이 모세 선교사는 ‘무슬림 배경의

예수 믿는 성도(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가 당면한 영적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많은 MBB들이 핍박과 추방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는 생존 문제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고 했다.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사역하던 이들이 후원이 중단되면 선교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선교사는 “A국에선 MBB 내부에 외국인의 재정으로 선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현지 성도들이 헌금해 MBB를 후원하는 문화

가 정착되지 못하고 선교사에게 재정을 의존하게 한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 사역할 때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회심자 K씨는 “인구 97%가 무슬림인 나라이지만 평화와 치유를 갈망하는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전도나 찬양 집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현지 특성상 일대일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삶을 나누는 전도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인터넷 SNS 등의 미디어도 하나님을 주신 훌륭한 복음 전파의 도구”라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 B국에서 온 S씨는 “많은 남자가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여자들이 홀로 남아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여성 사역자들을 활용해 명절이나 공휴일에 차 마시는 모임을 통해 위로하고 상담한다면 복음전파와 여성 리더 훈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난민선교에 대한 관점과 선교자원 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요셉(지엠넷 회장) 선교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잔혹성과 계파 간 정치적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난민이 발생하면서 무슬림 스스로 ‘움마(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최근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복음에 대해 열려 있다.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그들에게 기독교가 더 적극적으로 일꾼을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승교회) 군중목사의 침례사역, 기독교한국침례회 군선교회 총무 이상로 목사의 기도예 이어 김순규 목사가 침례식을 알리자 장병들과 집례자들은 야외 수영장으로 이동해 침례식을 진행했다.

김장환 목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음의 용사로 다짐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면서

“올해 침례세례 목표 인원이 7만명이라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채워져 나라를 위해 충성할 장병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의 큰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극동방송은 성경책과 신앙서적, 십자가 목걸이, 생필품, 간식 등을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예장통합·예장합동 9월1일 첫 연합예배

예장통합 ‘총회창립 100주년기념관’ 준공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이 건축 결의 11년 만에 완공돼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두 교단의 사상 첫 연합 예배 일정도 공개됐다.

림형석 예장통합 총회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준공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오는 9월 1일 예장합동 교단과 총회 차원의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이는 양 교단 분열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지역 노회 차원의 연합 예배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형제 교단인 예장합동과의 연합과 일치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한국 장로교

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1959년 분립 이전엔 한 몸이었다.

예장통합 교단은 이날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건축한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현재 총회가 입주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2층까지 연결된 이웃 건물로, 1984년 미국 장로교가 기증한 연지동 선교부지 위에 건축했다. 20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2008년부터 시작된 기념관 건립 논의가 11년 만에 열매를 거둔 것이다.

준공 감사예배에는 전 총회장들이 대거 초청됐다. 림 총회장의 부친인 림인식 전 총회장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 구석 구석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동성애 옹호' 경기도 성평등조례 반대

청원 5만명 육박...추천 5만 넘으면 도에서 답변해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경기도의 성평등조례에 반대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가 운영 중인 도민 청원 홈페이지(petitions.gg.go.kr/about/)에는 “7월 16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제정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8월 5일까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도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30일 현재 4만 5000명 이상의 도민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청원 글을 올린 이는 “성평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용

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통과된 점, 조례 발효 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지출 부분이 빠진 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재논의를 통해 바로 잡아 달라”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도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는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한다.

서울고법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가 23일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카합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카 21535)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다시 정지됐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이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된 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정성구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예장합동에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언약도들의 신앙고백문서 기증

정성구(77·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박사가 지난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역사관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도들의 서명이 있는 ‘신앙고백(The confession of faith) 문서’를 기증했다.

문서기증 자리에서 정성구 박사는 “언약도(言約徒)운동 같은 진리투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짜 크리스천, 가면을 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슴에 언약도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제2의 교회개혁운동이라 불리는 ‘언약도운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도들이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다. 국왕 찰스 1세가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는 직령을 내리자 성도들은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며 맞서다 박해를 받았다. 역사가들은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해 충성할 장병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의 큰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극동방송은 성경책과 신앙서적, 십자가 목걸이, 생필품, 간식 등을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정 박사가 이번에 기증한 문서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자유교회 신학교, 영국의 대표적 종교 개혁자 존 나스(John Knox)가 목회하던 성자

일레스교회에도 없는 자료다. 그레이프라이어스교회에 보관된 원본을 그대로 담은 사본으로 전 세계에 유일할 것으로 경기도 성남 칼빈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됐다.

이번 기증을 위해 특수지를 활용한 사본 제작 기법이 사용됐다. 덕분에 박물관에 소장된 문서와 동일한 크기(가로 70cm, 세로 90cm)와 질감을 구현할 수 있었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그런 강단이 현저하게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여전히 ‘행복론’과 ‘개교회 성장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실 속에서 언약도운동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의 신앙고백은 1776년 미국 권리장전의 기초가 됐을 만큼 사회적·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회 문제를 관조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주변에 알리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장합동 총회역사관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총회 임원과 총회역사위원회 위원, 한국칼빈주의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산훈련소서 3600여명 진중침례식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한국교회 큰 기쁨 될 것”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은 지난 20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근교에서 제549차 진중침례식을 개최했다. 훈련병 3600여명이 세례를 받았다.

군복음화와 군장병들의 신앙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침례식에는 김장환 목사를 비롯해 국내 침례교회 목사 51명, 미국 침례교회 목사 6명, 미국 군목 2명, 한국 군목 14명이 참석했다.

진중침례식은 7군단 김중구

선교의 창 (127)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난마(亂麻)처럼 엮긴 韓日 관계와 出路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1965년 6월22일 양국 수교 이후 가장 격한 상태이다. 아베정권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이리저리 말을 바뀌가며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권은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 리더십의 결정으로 인한 감정적 대치가 대다수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뿌리 깊은 미움과 분노가 표출되는 반면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 피로감과 냉대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뜨다가는 예기치 못할 큰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G3xG11의 싸움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병에는 처방전이 있듯이 인간사(人間事) 모든 곳에도 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말마적 대응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한말 이후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선봉에 섰었다. 이제 우리도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것은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지자적 목소리로 세상을 선포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G3xG11의 싸움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병에는 처방전이 있듯이 인간사(人間事) 모든 곳에도 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말마적 대응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한말 이후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선봉에 섰었다. 이제 우리도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것은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지자적 목소리로 세상을 선포하는 것이다.

1. 일본의 일반적 상황과 위상

일본(日本: にっぽんこく: 닛폰코쿠)은 어떤 나라인가? 국토는 태평양을 끼고 4개의 주된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들은 총 6,852개로서 화산활동을 통해 생겨났다. 총면적은 37만7973km²인데 이는 면적순으로는 세계 61위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2,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다. 사실상의 수도인 도쿄도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 폴리스이다. 이 지역에만 약 4,000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이후 1947년에 제정·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성립된 국가이다.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천황과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참의원(상원)·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경제력은 명목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네 번째로 크다.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G7에 들어가 있다. 일본은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3번째로 낮고 가장 높은 평균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정부에 대한 아베(安倍) 내각의 시각

일본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도,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들은 종교법으로부터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에 등록되어 있다. 일본의 주된 종교들은 신도와 불교이며 기독교도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3.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

북한 언론에서 "일본은 그 섬나라를 다 팔아도 조선에 대한 사죄를 갚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아무래도 지나치다 싶지만 이해가 가는 표현이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는 뿌리가 깊다. 일본 왜구(倭寇)들은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켰다. 저들은 7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살상하며 한반도를 속대밭으로 만들었다. 1895년에는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12월부터 지금까지 3선 연임에 성공하였다. 그는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일본 역사상 최장의 총리대신이 된 것이다. 이로서 그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국 정부의 대표자4명을 상대해왔다. 오늘의 무역 보복 결정이 있기까지는 지난 7년간 한국정부의 정책과 지도자의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시기인 2012년에 한국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역사적 판결을 했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고 일왕 사죄 발언과 같은 반일공세로 일본을

일본군의 암살단에 의해 시해(弒害)되었다. 무엇보다 저들은 1910년부터 36년이나 한일 합방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압제하였다. 그때에 저들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만행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개인이든 국가이든 오류를 범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할 때에 진정한 화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함에도 일본은 그들 조상의 과오를 합리화하며 역사를 왜곡해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강제징용, 위안부문제, 독도영유권, 야스쿠니, 교과서 내용 등에서 도발을 하며 한국인의 감정을 계속 쭈서왔다. 무역관계는 어떠한가? 연합 뉴스 7월 29일자에 의하면 한일 수교이후 2015년까지 지난 50년 동안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5천164억 달러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원

화로 치면 576조원 규모다. 한국 입장에서 '만성 무역적자'가 이어져온 것이다. 해마다 대일수입이 수출의 2배 정도이다. 과거의 침략과 현재의 무역 특수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무역보복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역대 한국정부 지도자들은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5.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출로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다. 이 참에 우리 한국은 다각도로 대일 관계를 점검하며 전향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경제적인 면이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첨단수출 제조업은 일본의존도가 너무 크다. 그곳에서 원 자제를 사와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순 이익이 크지 않으며 이번처럼 위험성도 있다. 이제 수입국가의 다변화를 꾀하되 가능한 국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해 국산품 애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치적인 면이다.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그 뿌리도 깊다. 이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실리가 없다.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야 한다. 그 방법은 수험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즉,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 이때에 답이 생각나지 않는 문제는 우선 건너뛰어야 한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나 다시 돌아와 풀면 된다.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복잡한 문제에 얽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낭패이다.

셋째는 선교적인 면이다.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이다.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참회자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본에게 아무리 압박을 가할수록 그들이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인가?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선교일본의 중요성을 언급함이다.

일본은 한국에게서 어떤 라인인가? 현해탄(玄海灘)을 끼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결어 없으면 좋을 것 같은 부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앞으로도 마르고 닳도록 함께 가야 할 이웃이다. 분명한 사실은 저들이 망하는 것보다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 어차피 동북아 질서는 한, 미, 일과 북, 중, 러로 편성되어 있다. 만일 일본이 없다면 힘의 균형이 급격히 중, 러 쪽으로 쏠리기 쉽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나라 나느웨를 수도(首都)로 하는 앗수리아에 해당된다. 그곳 선교사로 부름 받은 요나는 민족감정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간 요나를 통해 나느웨 왕과 사람들은 배움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이다.

jrsong007@hanmail.net

드라마 신약 (1)



김덕수 목사 (성서성경지역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셨습니다.

4개 왕조(프톨레미, 셀류코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로 분할된 헬라제국의 후예들 중에서 유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왕조는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입니다. 유대는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의 점령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다가 후에는 셀류코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

“예수, 그는 누구인가?”-중간사...로마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 당시 예수님 탄생 프톨레미 때 70인경 번역, 셀류코스 안티오크스 4세 때 하시딤 운동-마카비로

별히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70년 간 바벨론 땅에 살았습니다. 그 후 구약이 끝날 때는 바사(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사 통치를 받은 총 기간은 약 200년입니다. 그러다가 BC 336년 경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점령해서 약 30년 간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던 중에 죽게 되고 알렉산더의 헬라제국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4개 왕조(프톨레미, 셀류코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로 분할된 헬라제국의 후예들 중에서 유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왕조는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입니다. 유대는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의 점령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다가 후에는 셀류코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

면서 프톨레미 왕조를 세우고 약 100년 정도 유대를 지배합니다. 프톨레미 2세는 히브리어로 되어있던 구약을 약 70명의 유대랍비들을 동원하여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세투아진트' 즉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던 유대는 BC 198년에 셀류코스의 왕 안티오크스 3세가 점령하게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는 옛 바벨론 제국의 영토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셀류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특히 셀류코스의 안티오크스 4세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안티오크스 4세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유대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저항을 하며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시딤 운동은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하시딤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공동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티오크스 4세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때부터 대제사장의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시딤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후 전투적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이끈 사람이 마카비인데, '희망'이라는 뜻의 맛다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가 이끄는 혁명군은 안티오크스 4세의 정규군과의 투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로 유대는 독립하게 되었고 마카비의 가문인 하스몬 가문이 약 10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발생한 절기가 재건,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Hanukkah)라고 부르는 '수전절(修殿節)'입니다.

(14면으로 계속)



선교 펴기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선교지에 뿌려진 사랑의 씨앗”

선한목자교회를 담임목회하다가 60세에 조기은퇴 후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파송된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부부가 5년차 현지거주 사역하고 있는 뽀뜨레리요스 산간마을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두 주간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중남미지역에서 자비량으로 치료전문 선교사역을 15년

차 하고 있는 에벤에셀 의료선교팀 단장, 치과의, 안태준 장로 외 7명 치과의사와 정형외과의사, 치대생들 전체 20명 단기선교팀과 뉴욕 북부지역 한인동산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단기선교팀 선교위원 장 김학준 장로와 3분 의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과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29명 단기선교



팀이 방문하여 선교센터 인근 5개 마을에서 치과, 내과, 한방, 약 처방, 검안 및 안경, 사진촬영, 미용, 어린이 VBS사역을 현지 아동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중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사랑의 헌신과 정성된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갔다.

에벤에셀 의료선교팀은 지난 15년간 니카라과(이동훈 선교사)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이누가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를 방문하여 치과의 안태준 장로를 단장으로 하버드대 치대 과정의 2명 교수 치과의사와 보스턴, 시애틀, 칠레에서 합류한 7명 치과의사 팀과 치대생들이 전문적인 선교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악한 의료 환경과 치료기회가 미약한 선교지 6개 마을 현지주민들에게 사랑의 헌신을 통한 감사와 감동을 선사했다.

한인동산교회 단기선교팀은 선교위원장 김학준 장로와 선교부장 김태종 집사의 인도로 교회에서 파송된 29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6개월간의 기도와 선교훈련 과정을 마치고 잘 준비된 전문적 단기선교팀의 모습으로 치과, 내과, 한방, 사진, 안경, 검안, 어린이 성경학교, 미용 등 사역별로 맡은 분야에서 모든 팀원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사람 한사람을 정성으로 섬기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최선을 다해 쏟아부었다.

그동안 황 선교사부부가 선교지에 거주하며 사랑의 베품과 헌신적 선교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사역하는 마을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지역시장, 공립초등학교 교장, 교사 보건소장, 직원들과 현지주민들이 적극 협력하여 단기선교팀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엘살바도르 선교지에 영혼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hyj0691@gmail.com



기도/칼럼

각성의 은혜



박훈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세계적인 액션 스타 성룡이 자서전을 통해 충격적인 과거를 고백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서전 '네버 그로우업'(Never Grow Up)에서 음주운전과 도박, 성매매 등을 일삼았으며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하루에 두 차례 사고를 낸 적도 각각 고백했다. 아침에는 포르쉐를, 밤에는 벤츠 몰다가 각각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아들이 매우 어렸을 때 아내와 싸우다 아기를 한 손으로 들어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행히 아들이 소파 위에 떨어져 큰 화를 면했다고 덧붙였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읽고 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액션 스타로 성공한 후에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수를 일삼았다고 고백했다. 자신을 업신여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도박과 성매매 등에 돈을 펄펄 썼다는 것이다. 외도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불륜을 통해 딸을 낳았다.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겼던 그가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맹세한 것은 2016년 아카데미상 평생공로상 수상이 계기가 됐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다.

성룡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음의 중요성을 배운다. 쓰레기 같은 인생,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변화된 성숙한 삶을 살려면 신앙의 전환점을 이룰만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깨닫지 못하기에 쓰레기 같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깨달아 정신을 바로 차리는 각성(覺醒)이 있어야 바뀐다. 각성이 힘이다. 이 여름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신32:29).

bible66@gmail.com

드라마 신약 (1)

(13면에서 계속)

하스몬 왕조는 그 세력을 넓혀 요한 힐카누스 때에는 예돔(이두메)까지 정복을 했고,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가문의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대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특히 대헤롯은 예수님 출생 당시에 영아살해 명령을 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것일까요? 이것은 로마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제국은 처음에는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하여 원로원이라

는 기관을 통해서 공화정치를 표방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점점 커져서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헬라의 셀류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메섹을 정복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영토까지 침략해온 상황입니다. 바로 이 순간 헤롯가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폼페이우스를 도와서 유대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와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가문이 유대의 통치자가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헤롯가문에게 주었을 때, 로마 본국의 상황은 원로원의 부패 때문에 삼두정치가 시작됩니다. 즉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삼두정치의 균형이 깨지고, 폼페

이우스와 율리우스 시저의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폼페이우스는 전사하고 율리우스 시저가 패권을

로마의 힘은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시저의 신하 안토니우스 두 사람이 나눠 갖습니다.

그러나 그 둘 역시 패권을 놓고



잡게 되지만, 율리우스 시저는 자신의 부하인 부루투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시저가 죽은 후

치열한 다툼을 합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

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대권을 차지하고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눅2:1에 등장하여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타비아누스 당시 태어나셨고,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끝난 후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400년의 중간사가 신약에 딱 붙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연 하

나님은 세계사의 주인이심이 중간사를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없었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직책들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유대왕, 분봉왕, 열심당 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사를 배경으로 생겨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부하면 신약이 입체적인 3D로 보여지고 읽혀질 것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CA region.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회, 엘바인침례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엘피스사역원. Each listing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영어로 보는 성경 (28)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Ezekiel 2:4, 5

3) He said: "Son of man, I am sending you to the Israelites, to a rebellious nation that has rebelled against me; they and their ancestors have been in revolt against me to this very day. 4) The people to whom I am sending you are obstinate and stubborn.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5) And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for they are a rebellious people—they will know that a prophet has been among them.

(NIV 2011)

WORD & IDIOM

* Israelites: 이스라엘 민족 * rebellious: 반역(반항)적인 * rebel: 반역하다 * ancestors: 조상들
* in revolt against: ~에 반역(반항)하여 * obstinate: 완고한 * stubborn: 고집이 센, 고질적인, 완강한
* sovereign Lord: 절대 권력자이신 주, 주 여호와(한글개혁신경) * whether A or B: A이든 B이든
* prophet: 선지자

GRAMMAR

3) He said: "Son of man, I am sending you to the Israelites,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to a rebellious nation that has rebelled against me; 반역한 국민(민족)에게 나에게 반항을 해온 they and their ancestors have been in revolt against me to this very day.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 나를 반역해 왔다 바로 오늘날 까지 → 그가 말하였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곧 나에게 반항을 해온 (그)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바로 오늘 날까지 나를 반역해 왔다.

* <Be + ~ing>은 현재진행형을 나타냄으로 (I am sending)은 지금 보내고 있는 그림을 떠올려 해석한다. (to a rebellious nation)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으며, 관계대 명사로 연결된 문장은 또다시 (a rebellious nation)를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다.

4) The people to whom I am sending you are obstinate and stubborn. 그 백성 내가 너를 보내는 완고하며 고집이 센 Say to them,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백성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 <to whom I am sending you>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절로써 the people이 선행사다. (are obstinate and stubborn)에서 be 동사가 <are>로 쓰인 것은 주어가 되는 <The people>을 복수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And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 -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they will know for they are a rebellious people -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을 한 민족이기에 that a prophet has been among them.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어왔다는 것(을) →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을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 그들은 그들 중에 한 선지자가 있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for they are a rebellious people>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더 보충설명을 해주는 삽입 절이다. * <they will know> 다음의 that 이하는 (S+V+O)의 3형식, 즉 <they will know ~>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목적절이다.

STUDY & THOUGH

■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비 신앙적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워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패역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에스겔에게 그 소명을 주신다. 그리고 예언의 궁극적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신다(4절). 이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전해진 그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도 함께 전해야 할 것을 암시해 준다.

■ How are you responding to God who continues to give his word even though you turn away?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jameshur63@hotmail.com

월 다윗의 믿음(히11:32)찬388장

저자가 이름만 열거한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그는 여호와를 이스라엘과 자신의 반석이심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오직 여호와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시편18편에 일곱 비유를 통해 즉,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그는 언약

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심을 찬양했습니다(삼하22:8). 또한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돌아오는 새 풀같이 항상 새롭고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삼하23:4-5).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약속되었습니다.

화 선지자들의 믿음(히11:23)찬544장

이스라엘 왕권을 통해 신정을 세우려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을 통해 된 것입니다(삼하3:19).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승리했고, 엘리사 역시 갑절의 영감을 받아 더 많은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왕하2:9). 이사

야, 에레미야는 비관주의로 시작한 그들의 메시지는 장래의 소망 곧 메시아의 영광을 전하는 낙관주의자로 나타난 것이 모두 믿음의 행위였습니다(사11:10, 렘31:31-33).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중에 부름 받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새언약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전했습니다(렘37:26-28, 단7:13-14).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선지자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 위기를 극복한 믿음(히11:33-34)찬474장

그 믿음이 난관을 극복하는 도구였음을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원수를 이겼습니다. 영전에 치열한 우리 시대에 오직 믿음이 이 모두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났고(담6:10) 풀무불 속에서도 그의 세 친구는 믿음

으로 절대보호를 받았습니다(단3:6-8). 셋째, 연약할 때 강함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할 때 위로 오는 능력을 받아 이겼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 속에 있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 약할 때 도리어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고후9: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빌4:11-12). 이런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것입니다.

목 고난당하는 믿음(히11:35-38)찬327장

항상 이기는 것만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첫째,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난에 머물기로 정해졌습니다(35). 의를 위한 핍박이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둘째, 다른 이는 조롱과 체형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쪼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나은 은

혜를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유리하는 자리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부르신 분의 명령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방황하는 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나 원형극장, 감바도기아의 토굴은 모두 기적보다 더 나은 고난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사모할 자입니다.

금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히11:39-40)찬54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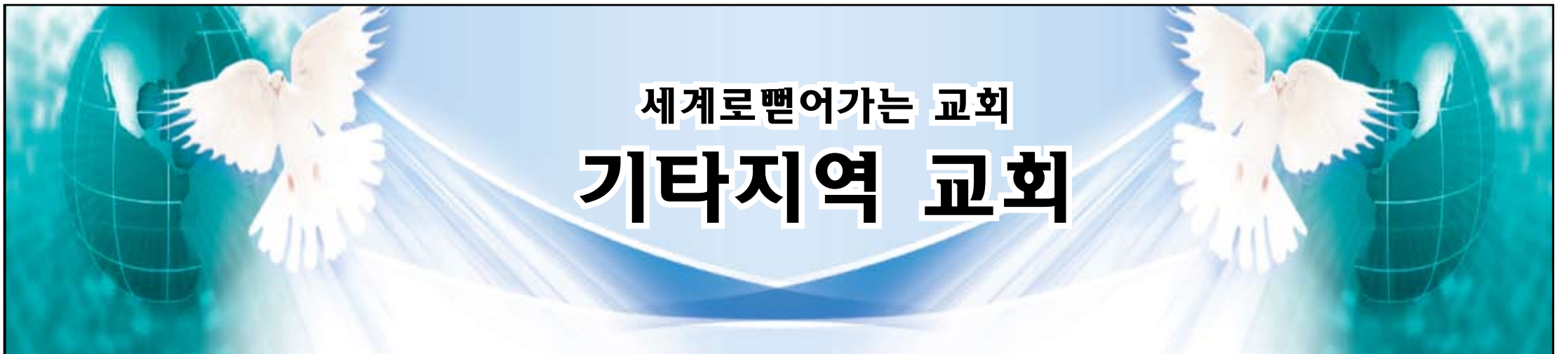
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일어나는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위 기적 같은 일들을 대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둘째,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것이 더 귀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더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귀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신자의 길에 근고와 형통을 헤아릴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더욱 하

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인 것처럼 당장에 무엇이 안 일어났어도 주님은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셋째, 그 중에 누가 알아주지 않은 순교의 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교회의 부흥과 변화는 숨은 성도들의 순교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밀알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토 우리의 경주(히12:1)찬434장

믿음은 경주와 같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방법을 보여주기에 우리가 현실의 경주를 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 일락,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요일2:15-

16). 둘째, 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가 경주의 발목을 제일 잘 잡기 때문에 속히 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와 함께 더 나은 경건의 습관을 가짐으로 해결됩니다.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경주는 목표를 바라보고 뒤엎것을 잊어버리고 신실하게 달리는 자세는 물론, 오랜 건디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됩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회: 오후 8:00 수요일찬양회: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0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안찬양: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79-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9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3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ijks.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인/터/뷰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주고, 제약을 주던 것에서 지지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더니 교인들 역시 목회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사모를 동역자로 바라보게 됐으며 일그러졌던

“사역자들이 사역현장에서 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이가 쉽지 않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엘피스 사역을 시작한 뒤 가장 크게 도움을 주고 지지를 해주는 분들이 저희 가족이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적이 필요할 땐 지적도 해줍니다. 사역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땐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가정사역자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요.”

박 목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첫인상으로 결정할 때가 많았는데 사역을 하면서 ‘내 생각’이라는 것을 접고 모든 분들을 포용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들어주려 하는 것, 특히 어려운 분을 만날 때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한 것이 사역을 하면서 변화된 부분”이라 말했다.

엘피스사역에 대한 바람으로 “목회자들이 가정사역과 여성사역에 대해 지식적인 것을 비롯해 여러 면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가정사역에 대해 세미나를 비롯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운송 목사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와 석사, 미드웨스트신학교에서 기독교상담학석사(MA), 아주사피시픽신학교 목회학석사(M.Div), 클레이몬트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D.Min)를 받았으며 지난 2016년부터 엘피스사역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문의: (213)700-9928 (박준호 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 사역을 통해 여러

움을 겪고 있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할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7월 24일 창립예배를 갖고 3년 동안 가정 사역을 해왔다”며 “여러 상황 속에서 일그러져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엘피스를 통해 회복을 맞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 사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성사역자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2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목사안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왜 목사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거든요.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 직분을 받는 것은 목회자들의 아내들을 위한 힐링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고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다닐 때 대화법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으며, 장평중학교에서 5년간 상담교사로 재직했고, 한국 생명전화에서도 5년간 전화상담원 경험이 엘피스에서의 여성사역을 하

는데 밑거름이 됐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 말했다.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사모님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은 사모들의 위치에 대한 소중함

통해 변화를 맞본 것 중에는 개적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처한 목회자 부부의 변화라고 언급했다.

“목회사역이 어려움 속에 있는 목회자 부부였어요. 목회자

목회자 사모 힐링 사역...부부세미나, 갈등관리 등 사역 통한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의 가정과 자기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사모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인들이 사모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프레임 속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모라는 위치는 매우 힘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모님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저희교회에서 김은주 씨를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김은주 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담임목사님 부인의 성함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위치가 사모라는 위치죠.”

그는 3년간 엘피스 사역을

는 사역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힘겨움 속에 있다 보니 의욕적으로 시작된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가정으로 까지 이어지게 됐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아내가 목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는 양들을 중요시하다보니 교인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아내의 의견은 무시되기도 하고 활동역시 제약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엘피스에서 상담을 통해 목회자가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고 사역을 위해 목사와 사모가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게 됐습니다.”

여성을 위한 사역이 주는 보람도 있지만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운송 목사는 사역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나타나 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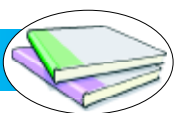
“목회자 부부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사역의 대상이 여성이며 대부분 사모님들이라 보니 남편 목사님들과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다”며 “사모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남편인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남편들이 자신은 가정사역자로 생각하고 있고 사역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으로 배운

으로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사역세미나: 부부세미나, 갈등관리(Collict Management) BMT 세미나, 리더십 코칭 세미나 (Leadership coaching), 대인과의 소통을 위한 세미나, 결혼예비학교(Pre-Marriage School), 자녀교육세미나, 하부르타 세미나, 전화상담, 대면상담 △말씀사역: 큐티세미나, 성경통독세미나, 일대일 제자훈련 △네트워킹사역: 영성사역, 아침묵상, 중보기도 등이다.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 사역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박운송 목사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변화라고 말했다.

새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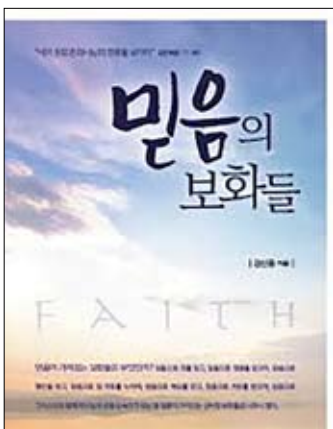


“믿음의 보화들”

저자 강신용 목사

뉴욕사랑의동산교회 담임 강신용 목사가 최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는 주제 성구를 들고 설교칼럼집 “믿음의 보화들”을 출판했다.

필자 강신용 목사는 “요즈음을 늦은 비 시대, 추수의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시대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인지 특별한 방법으로 종들을 부르셔서 천국과 지옥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 내용들을 다 믿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다른 복음’을 낳는 사례가 생

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책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부요를 얻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

제 1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2부 믿음은 순종을 본질로 삼는다, 3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4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 5부 믿음이 가져오는 신비

회자의 길로 들어선 필자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책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정리하며 믿음에 따라오는 다양한 주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 268페이지, 콤팩출판사 발행. 책은 미국 내 한국서적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필자 이메일: aerimkang@hotmail.com

(유원정 기자)

진리의 말씀 근거로 믿음 정리...

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바른 믿음”이 무엇이며 ‘바른 믿음’이 가져오는 보화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나갔다.

한 보화들로 돼있으며 각 부마다 3-5장의 소제목 글들이 실려 있고 각 장에는 관련 성구들이 적혀있다. 강력한 성령세례를 받고 목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